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11호 【루계 제25620호】 주체106(2017)년 4월 21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설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국력을 만방에 과시한 기세드높이 총돌격 앞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5돐을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로 성대히 경축한 조국강산에 승리자의 커다란 긍지와 환희가 뜨겁게 차넘치고 만리마의 발구름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온 나라가 태양절경축열기로 끓어번지던 격동의 시기에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지구에 거연히 솟아오른 려명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천만군민이 삼가 올리는 충정의 선물이며 사회주의조선의 무진막강한 국력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려명거리에는 우리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사상과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 사회주의문명의 척도가 응축되여있다. 려명거리가 로동당시대의 선경으로, 현대건축거리의 본보기, 표준으로 웅장화려하게 완공됨으로써 우리 조국의 필승불패의 전통과 무궁무진한 발전잠재력,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이 세계앞에 남김없이 떨쳐지게 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는 려명거리를 만리마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워 사회주의조선의 강대성과 필승의 기상을 만천하에 과시한 인민군장병들과 돌격대원들, 지원자들에게 가장 뜨거운 감사와 열렬한 전투적인사를 보내였다.

지금 우리의 천만군민은 사회주의승리에 대한 신심과 자기 힘에 대한 확신에 넘쳐 광명한 래일을 눈앞에 그려보고있으며 려명거리건설에서 대승리를 쟁취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궐기하여 세기를 주름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하여야 합니다.》

조선로동당의 결심은 곧 실천이고 승리이다. 우리 당의 웅대한 대건설구상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일떠선 려명거리는 다양하고 특색있는 건축물들의 종합체이기 전에 사회주의조선의 불패의 국력에 대한 입증서이다.

려명거리건설은 우리 인민의 소중한 모든것을 찬탈하고 생존권까지 짓밟으려는 제국주의자들과 적대세력들의 야만적인 제재압살책동을 백두의 굴함없는 공격정신, 전격한 사회주의수호정신으로 산산이 짓부셔버리기 위한 치렬한 대격전이였으며 만리마를 탄 기세로 단숨에 비약하여 인민의 꿈과 리상이 꽃피는 사회주의강국의 찬란한 미래를 앞당겨오기 위한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이였다.

려명거리완공은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조선로동당만이 안아올수 있는 기적적승리이며 원쑤들의 정수리에 멸백발의 핵폭탄을 터뜨린것보다 더 무서운 철퇴를 안긴 대사변이다. 려명거리에는 력사의 돌풍속에서도 광휘로운 미래를 앞당겨나가는 사회주의조선의 숨결이 맥동치고 인민의 지상락원을 우리의 손으로, 우리식대로 보란듯이 건설해나가는 천만군민의 불굴의 기개가 비껴있다. 려명거리야말로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이 최상의 경지에서 떨쳐지는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의 대기념비이다.

려명거리완공의 장쾌한 승전로성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더 큰 승리를 이룩해나가게 하는 우렁찬 진군나팔소리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해 3월 몸소 현지에서 조선혁명의 려명이 밝아오는 뜻깊은 곳에 일떠세우는 거리의 이름을 《려명거리》로 명명해주시고 전당, 전군, 전민을 려명거리건설전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셨으며 올해에 두차례나 건설장에 나오시여 태양절전으로 려명거리건설을 무조건 완공하자고 전체 건설자들에게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당이 준 과업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관철하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체질화된 습벽이고 자랑스러운 혁명적기질이다. 려명거리건설자들에게 있어서 당중앙의 결심은 삶의 좌표였고 승리의 표대였다. 결사옹위, 결사관철의 함성이 진감하고 군민협동작전이 과감히 전개된 려명거리건설장의 문과 초는 그대로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과 위훈으로 수놓아졌다. 수천수만명의 청년전위들과 평양시민들이 밤을 새우며 애국의 구슬땀을 바치고 전당적,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지원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쳤다. 70층살림집골조가 74일만에 완성되고 불리한 일기조건에서도 4만 3 000여㎡ 면적의 외벽타일붙이기가 13일동안에 끝난것과 같은 눈부신 성과들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이룩되며 불과 9개월만에 려명거리가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선것은 당중앙뜨락에 운명의 피줄을 잇고 당의 부름이라면 단숨에 산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적위력이 안아온 빛나는 승리이다.

령도자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굳게 뭉친 일심단결은 주체조선의 최강의 힘이며 백승의 보검이다. 당은 인민복을 누리고 인민은 당복을 노래하는 일심일체의 위력이 있기에 제2, 제3의 려명거리신화들이 련이어 창조되고 우리 조국의 강대성과 불패의 위용은 더 높이 떨쳐지게 될것이다.

려명거리완공의 장쾌한 승전로성은 자력자강의 만리마대진군을 더욱 힘있게 떠미는 비약의 박차이다.

지난해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에 집결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고립압살책동이 극도에 이른 시기에 려명거리건설의 뇌성이 울려퍼졌다. 려명거리건설은 단순히 거리형성이 아니라 사회주의조국의 존엄사수전이였고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이였다. 적대세력들이 고안해내고 강행한 사상 최대의 정치군사적압력과 전대미문의 제재봉쇄도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강력을 꺾지 못하였으며 사회주의조선의 혁명적전진을 순간도 멈춰세울수 없었다.

려명전역은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와의 치렬한 대결장, 사회주의수호전의 최전방이였으며 전체 건설자들은 자력자강의 용감한 돌격투사들이였다. 원쑤들의 더러운 몸뚱아리에 비수를 꽂는 심정으로 착공의 첫삽을 박은 건설자들의 가슴가슴은 자강력제일주의로 끓어번졌다. 그들이 들어잡은 기공구는 자력자강의 무기였고 그들의 투쟁방식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였다. 가치있고 대담한 공법들이 적극 창안도입되고 수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이 해결됨으로써 건설속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날이 갈수록 더욱더 높아갔다. 전국각지의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은 싸우는 고지에 총포탄을 보장하는 심정으로 증산투쟁, 창조투쟁, 돌격투쟁의 불길드높이 각종 자재와 설비들을 최우선 생산보장하고 내각과 성, 중앙기관들, 도, 시, 군인민위원회들이 경제조직사업을 혁명적으로 전개하여 려명거리건설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려명거리의 웅장한 자태는 우리가 일단 마음먹은것은 다 할수 있음을 보여주고 자력자강의 불변침로를 따라 폭풍쳐 나아가는 사회주의조선의 앞길을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써도 절대로 가로막을수 없다는 철리를 새겨주는 생동한 화폭이다.

자력자강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정신, 창조본때이며 우리가 갈길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자력자강의 한길뿐이다. 주체사상의 조국에서 태여난 우리의 천만군민은 자강력제일주의로 사회주의승리의 과학성과 필연성을 현실로 확증할것이며 이 땅우에 기어이 인민의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울것이다.

려명거리건설의 완공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인민관과 애국헌신의 령도가 안아온 자랑스러운 대승리, 전인민적인 대경사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려명거리건설을 선포하시고 건설진과정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련속적인 철야진군을 진두지휘하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몸소 설계가, 시공주, 건설주가 되시여 천수백건의 형성안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시고 강력한 건설력량을 꾸려주시였으며 건설을 빠른 속도로 추진시키기 위한 혁명적인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건설장을 찾으실 때마다 려명거리건설자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신화적인 건설속도가 창조되고있다고, 우리 인민들과 또 하나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에 기분이 정말 좋다고 하시며 전체 건설자들이 마지막결승선을 향하여 질풍노도처 내달리도록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만리마속도가 태여나고 금수산지구가 사회주의승리의 려명이 밝아오는 인민의 제일락원으로 천지개벽되게 되였다.

지금 우리앞에는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총돌격전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뜻깊은 올해에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오늘의 총진군은 려명거리건설을 통하여 창조되고 과시된 만리마속도와 불패의 국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비약, 대혁신의 폭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세계를 앞서나가기 위한 애국적진군이다.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강국을 만드시 일떠세울수 있다는것을 실증하고 전민총돌격전의 승리를 위한 사상정신적도약대를 마련한 여기에 려명거리완공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가 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전진하는 사회주의조선의 강대성과 필승의 기상을 만천하에 과시한 기세드높이 전민총돌격전을 과감히 벌려 승리를 더 큰 승리에로 이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승리의 기치이다.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현실로 꽃피우고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들에게 사회주의만복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고 계신다. 만리마속도창조의 고향, 사회주의강국의 휘황찬란한 래일이 비껴있는 려명거리는 천만군민에게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는 사회주의조선의 불패의 힘이고 승리이라는 철석의 신념을 안겨주고 당중앙이 가리키는 한길을 따라 계속혁신, 계속전진, 련속공격해나갈 불굴의 투지와 용기를 백배해주고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조국과 혁명,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불철주야의 현지지도에 백두산혼현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무적강군의 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며 적들의 광기어린 전쟁도발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려야 한다.

혁명적당군, 건설혁명의 주력군인 인민군대는 당의 인민사랑의 뜻을 꽃피우기 위한 대고조적전장마다에서 공격전, 전격전, 섬멸전을 과감히 벌려나가야 한다. 군민협동작전의 주동이 되고 기수가 되여 만리마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더 많이 일떠세우며 건설의 대번영기를 앞장에서 걸어나가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관철을 위함이라면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는 인민군군인들의 무비의 용감성과 혁명적기질을 따라배워 만리마대진군의 자욱자욱을 혁혁한 위훈으로 수놓아가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인민군대지휘관들처럼 대담하고 통이 크게 작전하고 현장에서 전투를 조직지휘하며 대오의 앞장에서 진격로를 열어나가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 들고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국산화의 불길,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특출한 성과로 맞이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의 역할을 최대로 높여야 한다.

사상전의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로 려명전역을 불도가니마냥 부글부글 끓게 한 혁명적사상공세는 화선식정치사업, 침입식사상사업방법의 본보기로 우리 당 전투기록집에 빛나게 아로새겨졌다. 모든 당조직들에서는 려명거리건설장에 나래친 만리마의 기상이 온 나라에 차넘치도록 하기 위한 일대 사상전을 맹렬하게 펼쳐대야 한다. 선전선동력량과 수단들을 총동원하고 정치사업을 풍세적으로, 립체적으로 벌려 대중의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을 계속 고조시키고 천만군민을 당의 권위보위전, 사회주의수호전, 인민복무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을 더욱 심화시키며 패배주의와 안일해이와 같은 사상요소들을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나가야 한다. 모든 초급당조직들은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의 기본정신을 철저히 구현하여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총돌격전에서 자기 단위의 전투력을 남김없이 떨쳐야 한다. 청년들이 청춘의 용감성과 기백, 슬기로 초소와 일터마다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도록 떠밀어주어야 한다.

모두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주체조선의 국력을 만방에 떨친 기세드높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총돌격, 총매진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이 답전을 보내여왔다

평 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 정 은 동 지

경의를 표합니다.

나는 당신께서 수리아아랍공화국의 국경절인 독립절에 즈음하여 친절한 축하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면서 당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것과 아울러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보다 큰 진보와 발전이 있을것을 가장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당신께서 우리 나라와 우리 인민을 지지해주시고 특히 현재 직면한 난관을 극복해나가고있는데 대하여 항상 관심을 돌려주시며 수리아의 령토완정과 인민의 리익을 수호하고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이룩하는 등 현 위기를 민족대화에 기초한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해나가려는 우리의 립장을 성원해주시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합니다.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싸드

2017년 4월 18일 다마스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5돐경축

제19차 김일성화축전 페막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맞으며 13일에 개막되였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5돐경축 제19차 김일성화축전이 페막되였다.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시며 조국번영의 새시대를 펼쳐나가는 천만군민의 찬란한 미래를 축복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뜨겁게 굽이친 축전장은 련일 성황을 이루었다.

절세위인의 위대성을 상징하는 태양의 꽃, 진보적인류의 뜨거운 지성에 떠받들려 피여난 위인칭송의 꽃들로 황홀경을 이룬 축전장을 수많은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해외동포들과 외국손님들이 참관하였다.

페막식이 20일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에서 진행되였다.

김키남동지, 양형섭동지와 전광호내각부총리, 축전조직위원회, 태양의 꽃을 전시한 단위 일군들, 평양시내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페막식에 참가하였다.

권순희 총련중앙상임위원회 고문을 단장으로 하는 태양절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과 주조 인도네시아공화국대사관 성원들, 불멸의 꽃 보급후원회 회원들, 외국손님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페막식은 《김일성장군의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였다.

축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조선인민군 김성력소속부대, 인민무력성, 김일성종합대학 등 많은 단위들과 축전에 공헌한 성원들, 모범적인 재배공들과 비전향장기수들을 비롯한 참가자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상을 정중히 모신 김일성화축전상상장이 수여되였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와 주조 인도네시아공화국대사관, 외국인들이 상장을 수여받았다.

또한 불멸의 꽃을 통한 위대성선전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축전장을 찾은 참관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준 해설강사들에게 상장이 수여되고 개별참가자들에게 참가증이 수여되였다.

김창도 조선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 위원장이 페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깊은 관심과 기대속에 제19차 김일성화축전이 성황리에 진행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불멸의 꽃을 더 잘 키워 대대손손 길이 전하며 김일성화축전을 성대히 진행하는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이며 위대한 수령님의 후손,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의 신성한 의무이고 도리이며 마땅한 본분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선군조선의 국보, 민족의 자랑인 김일성화는 위대한 태양의 존함과 더불어 천만년 길이 빛날것이며 우리 나라는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끝없이 륭성번영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페막식은 《불멸의 꽃 축전가》주악으로 끝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5돐을 경축하여 진행된 제19차 김일성화축전은 위대한 수령님을 천세만세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이 땅우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강국념원, 애국념원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민족의 최고령도자이시며
재중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여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앞길에 끝없이 양양한 미래가 펼쳐지고있는 오늘 어머니조국에서 진행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5돐 경축행사에 참가한 더없는 영광과 행복을 지니고 조국을 떠나기에 앞서 경애하는 원수님께 삼가 이 글을 올립니다.

온갖 꽃 만발하고 아름다운 새들이 지저귀는 화창한 4월의 봄날 유서깊은 만경대로 달려가는 온 겨레와 세계 진보적인류의 경건한 마음을 담아 우리 태양절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과 로일군대표단 전체 성원들은 어버이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뜻을 이어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줄기차게 이끌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조국체류기간 우리들은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으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성대히 거행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 105돐경축 중앙보고대회와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 청년학생들의 야회, 경축연회, 경축공연에도 초대되였습니다.

이번 태양절경축행사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의 위력과 자력자강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해 노도쳐 전진하는 태양조선의 존엄을 온 세계에 힘있게 과시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정치에 의해 인민의 행복의 보금자리로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완공된 려명거리와 천하무적강군의 위력을 과시한 열병식, 그 어느 나라에서도 상상조차 할수 없는 군중시위를 보면서 최고령도자동지의 웅대한 사회주의강국건설구상과 령도를 경사의 한마음으로 받드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기상과 사회주의조선의 무한대한 경제적잠재력을 똑똑히 보았으며 온갖 원쑤들의 치졸하고 비렬한 제재소동과 전쟁도발책동이 한갖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겉에 돈 자시보다 먼곳에 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는 친어버이사랑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5돐을 성대히 경축하는 조국의 큰 잔치에 우리들을 몸소 불러주시고 최상의 숙식조건을 보장해주시며 언제나 앞장에 내세워주시였습니다.

어찌 그뿐이였습니까!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 단장인 최은복의장을 주석단에 세워주시고 삼가 올리는 소박한 말도 다 들어주시며 친히 위로와 격려의 말씀도 주시였습니다.

조국방문기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너무도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인생의 자양분으로 받아안은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나 최고령도자동지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천추만대에 길이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 한몸 다 바칠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여있습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무어주시고 이끌어주신 우리 재중조선인총련합회를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나가는 동포조직으로 튼튼히 꾸려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 제7차대회 과업관철을 위하여 총돌격, 총매진하고있는 조국인민들과 보폭을 맞추며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더 부강하게 하기 위한 애국사업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 특색있는 기여를 하겠습니다.

특히 해내외의 각계각층 통일애국운동단체들과의 련대련합을 강화해나가며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온 겨레가 하나로 뭉쳐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북침핵전쟁도발책동을 여지없이 짓부셔버리고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벌려나가겠습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시고 찬란한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안녕은 8천만 온 겨레와 전세계 진보적인류의 간절한 소원이며 희망입니다.

우리들은 다함없는 흠모와 충정의 한마음을 담아 태양조선의 영원한 무궁번영과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우리 민족의 최고령도자이시며 재중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안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태양절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로일군대표단 성원일동 드립니다.

주체106(2017)년 4월 19일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요르단준비위원회 결성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요르단준비위원회가 7일에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조선인민과의 련대성 및 조선통일지지 아랍위원회 위원장 마르완 쑤다흐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를 계기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백두산천출위인들의 위대성과 업적을 소개선전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과감히 맞서나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활동을 적극 벌려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주체의 사회주의승리는 력사의 진리이다

사회주의《종말》을 떠들며 반사회주의책동에 광분하던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궤변을 쳐갈기면서 사회주의위업의 정당성을 천명한 평양선언이 힘있게 울려퍼진 때로부터 25년이 되었다.

지구상에 첫 무산정권이 출현하여 10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한 올해에 세계의 이목은 세기를 이어오며 단 한번의 로선상착오나 답보를 모르고 승리와 영광의 한길만을 아로새겨온 조선의 사회주의에 집중되고있다.

사회주의의 존엄과 권위를 굳건히 수호해나가고있는 조선의 위용은 세인의 경탄을 자아내고있으며 인류는 승승장구하는 조선의 사회주의에서 세계사회주의승리의 창창한 미래를 보고있다.

1

주체81(1992)년 4월 20일 평양에서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계 여러 나라 정당 당수들과 대표들의 참가밑에 《사회주의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키자》라는 평양선언이 발표되었다.

불과 몇달전인 1991년 12월 25일 모스크바의 크레믈리지붕우에서 70여년간이나 사회주의기치로 나붓기던 붉은기가 내려워지는 가슴아픈 현실을 목격한 진보적인류에게 있어서 평양선언발표는 참으로 거대한 의미를 안고있었다.

쏘련공산당의 해산과 사회주의붕괴라는 비극이 세계면전에서 빚어지면서 운명의 갈림길에 서야 했던 사회주의위업은 드디어 평양에서 재생의 진로를 찾게 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의 주동적발기와 노력에 의하여 마련된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전진시켜나갈데 대한 평양선언은 세계 혁명적당들의 공동의 투쟁강령으로 되였으며 그것은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에 타격을 주고 사회주의재건을 위한 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을 고무하였습니다.》

평양선언의 발표는 세계사회주의운동사에 대한 총화였으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운동의 새 출발을 알린 력사적사변이였다.

선언발표를 전후한 시기인 1990년대는 력사의 전진에 역행하는 반사회주의광풍이 그 어느때보다 사납게 휘몰아치던 시기였다.

평전선포후 《자유》와 《민주주의》를 제창하며 시작된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은 이 시기에 극도에 달하였다.

특히 선행사회주의학설이 자주시대가 제기하는 문제들에 해답을 주지 못하고 제한성을 나타낸것을 두고 제국주의궤변론자들은 《사회주의리념자체가 그릇된것》이고 《사회주의혁명을 한것부터가 잘못된것》이라고 헐뜯다못해 사회주의《종말》에 대해서까지 떠들어댔다.

력사발전의 주인인 인민대중에 대한 사상사업, 혁명의 주체강화를 뒤전에 놓고 물질경제발전을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징표로 보면서 그에만 치중한 동유럽나라들은 이른바 《물질적번영》을 광고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을 극복할수 없었다.

나중에는 자본주의를 미화분식하는 력사의 반동들의 감언리설과 궤변을 가려보지 못하고 사회주의붕괴를 막을수 없게 되었다.

1989년 8월 15일 미국신문 《크리스찬 싸이언스 모니터》는 미국의 반쏘작전에 대해 이렇게 공개적으로 불어댔다.

《쏘련에 대한 거대한 딸라공세가 성공적으로 실시되였다. 딸라는 이 나라의 공업을 이미 절반이나 파괴하고 공산주의이데올로기를 무너뜨렸으며 쏘련사회를 와해시켰다. 전문가들은 쏘련의 붕괴가 가깝게는 2~3년안의 일이라고 추측하고있다.》

바로 그달에 뽈스까에서 사회주의기발이 내리여졌으며 마자르, 로므니아를 비롯한 동유럽의 모든 사회주의나라들에서 련쇄적으로 공산당, 로동당들이 해산되였다.

1991년 12월말에는 쏘련까지 붕괴됨으로써 동유럽지역에서는 자본주의가 전면복귀되게 되였다.

제국주의자들과 혁명의 배신자들은 때를 만난듯이 사회주의《과산》과 《실패한 시험》에 대해 떠들어대면서 그것을 20세기의 《대유산》이라고 광고하고 자본주의의 《영원성》을 떠벌이였다.

력사에 있어본적 없는 이 동란은 세계알에 끊임없는 론쟁과 의혹을 가져다주었다.

지난 몇해전 아시아의 한 보도물은 쏘련 및 동유럽의 격변과 관련하여 나도는 무수한 리론, 추측속에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결론을 얻게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주장하였다.

《정치적기치와 리상, 신념을 포기하고 사상적무장과 적아의식을 포기하면 적아를 구분하지 못하는 정당으로 된다.

자신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는것이 아니라 자기자신을 부정하고 적극적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낡은것을 고집하며 인민의 힘을 믿지 못하고 서방의 〈신화〉를 믿으며 자기의 집권기초를 상실한 정권이 점차 쇠퇴와 멸망의 길로 나가는것은 필연적인것이다.》

그러나 뭉과많은 세계정치사의 안팎에 정통한 수많은 나라의 정당 및 정치인들은 동유럽사회주의가 붕괴되기 썩 이전에 벌써 주체조선의 수도 평양에서 울린 정의와 진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 전적인 공감을 표시하면서 평양으로 향하였다.

백두에서 닻을 올린 조선혁명은 시작부터 다른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력사적, 시대적, 민족적환경에서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새로운 사상을 창시하고 그에 기초하여 자기 발전의 독창적인 길, 전인미답의 길을 열어놓은 철두철미 자주적인 혁명이였다.

현대수정주의자들이 맑스주의정통과로 자처하며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민대중이 자기의 독자적인 사상을 들고나오는것을 악랄하게 반대하던 1950년대에 조선혁명은 사회주의혁명단계에 이어 사회주의건설단계에 들어서게 되였지만 추호의 동요나 변색을 모르고 오직 자주의 길을 따라 전진하였다.

현대수정주의자들이 《개인미신》반대의 미명하에 로동계급의 수령의 권위를 심히 훼손시키던 1960년대에 조선에서는 수령은 개인이 아니라 전체 인민의 리익의 최고대표자이라는 주체적인 수령론이 울려나왔다.

1970년대에는 수령의 사상과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며 세계사회주의운동을 고수해나갈 조선혁명가들의 불변의 신념과 철의 의지를 담아 수령의 존함으로 빛나는 새로운 혁명사상인 김일성주의의 탄생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발표하신 《주체사상에 대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 사회주의이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를 비롯한 수많은 고전적로작들은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사회의 면모와 그 건설의 합법칙적과정, 전략적목표와 로선으로부터 모든 분야의 투쟁방침과 구체적인 방도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밝혀준것으로 하여 조선혁명뿐아니라 세계사회주의운동의 승리의 기치로 되였다.

특히 위대한 장군님께서 쏘련해체직후인 1992년 1월 3일에 발표하신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은 진보적인류를 환희에 휩싸이게 하였고 사회주의운명에 대해 온갖 잡소리를 제치면자들에게는 심대한 타격으로 되였다.

로동계급의 리념과 사명에 충실하면서도 그 사상적기초와 건설방식에서 전혀 새로운 길을 밟힌 주체의 사회주의건설의 대강들은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김정일령도자의 로작들은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그이께서는 맑스, 엥겔스, 레닌도 주지 못한 탁월한 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시였다.》, 《김정일각하의 로작을 읽으면서 사회주의에 대한 나의 인식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있다는것을 느끼였다. 나는 이제부터 동방의 등대, 조선의 사회주의를 향하여 노를 힘껏 저어나가려고 한다.》

신리해안의 예지와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자주시대 사회주의운동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 어기에 사상리론의 천재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인류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공적이 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평양에서 사회주의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켜나갈데 대한 력사적인 선언이 채택되게 된 동기와 심원한 의미가 있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여러 나라 공산당, 로동당들과 진보적정당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들에서 사회주의재건운동의 솔로를 찾게 되였다.

또한 조선의 현실에서 주체의 사회주의의 진리성과 생활력을 더욱 굳게 확신하게 되였으며 그에 기초한 사회주의운동의 공동의 투쟁강령작성을 모색하게 되였다.

조선로동당을 중심으로 진행된 여러 나라 정당 당수들과 대표들사이의 쌍무적 및 다무적접촉과 회담들에서는 당시 사회주의가 붕괴된 원인과 교훈을 정확히 인식하고 제국주의자들의 해방과 반혁명적공세로부터 사회주의위업을 수호하고 그것을 새롭게 떠밀고나가기 위한 방도들이 심도있게 토의되였다.

결과 선행한 리론의 시대적제한성을 찾고 사회주의위업이 주체의 사회주의리념을 구현해야 하며 사회주의재건을 위한 새로운 투쟁강령이 있어야 한다는 공통된 리해에 도달하게 되였으며 드디어 평양선언을 발표하게 되였다.

평양선언은 다음과 같이 밝히였다.

《사회주의사회의 전진을 위한 담보는 인민대중을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만드는데 있다. 그러한 사회는 승리적으로 전진한다는것이 리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진리이며 현실이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계의 진보적정당들은 평양선언을 《현시대의 참다운 공산당선언》으로 높이 칭송하면서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표시하였으며 오늘도 그 대오에 합세하고있다.

지난 25년간 평양선언에 서명한 수는 70개 정당으로부터 300여개의 정당으로 늘어났다.

로씨야의 한 신문은 20세기 진보적인류의 위대한 장거인 식민지 및 예속국들에서의 민족해방투쟁과 쏠리불카탐운동 그리고 다시금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사회주의재생운동은 주체사상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고 격찬하였다.

미국의 한 정치학교수는 《사회주의열기는 싸늘하게 꺼진 재로 된것이 아니라 더욱 세차게 타번지고있으며 그것은 벌써 세계에 제2의 공산당선언의 구름을 몰아오고있다. 북조선땅에서 타번지고있는 사회주의열기는 21세기의 그 어느때에는 반드시 세계 모든 지역에 만연될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인류의 오늘은 물론 먼 앞날까지 대표하는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조선의 사회주의는 그 과학성과 진리성으로 하여 세계 수억만 진보적인류의 심장을 틀어잡으며 행성을 붉게 물들이고있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야말로 가장 참다운 사회주의, 전진하는 사회주의이다.

2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의 붕괴를 기화로 《랭전의 승리》, 《자본주의의 승리》의 폐재를 울리던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서 련이어 울려퍼지는 위력한 사상의 공세앞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평양선언발표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적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우리 인민정권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수 없다》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련이어 발표하시여 조선혁명과 세계사회주의운동앞에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거듭되는 해답들을 주시였다.

특히 민족의 대국상과 련이은 자연재해등으로 조선혁명이 고난의 행군에 들어섰던 1994년 11월 1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로동신문》에 발표하신 론문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는 사회주의를 새로운 과학적기초우에 올려세움으로써 선행사회주의학설의 력사적제한성을 극복할수 있게 하는 한편 제국주의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보다 힘차게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하였다.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진것은 과학으로서의 사회주의의 실패가 아니라 사회주의를 변질시킨 기회주의의 파산을 의미한다는 위대한 선언은 《사회주의의 실패》를 떠들던 제국주의자들과 사회주의배신자들의 정수리를 내리치는 철퇴가 되였다.

세계의 광범한 정계, 사회계, 학계, 언론계가 한결같이 공인한바와 같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운동의 재건과 사회주의위업의 새로운 전군을 선포한 력사적선언이였다.

이전 쏘련 및 동유럽나라들의 정당, 단체, 인민들속에서 사회주의시기에 대한 그리움이 높아가는 속에 반사회주의적궤변들을 짓부시고 선대수령들의 업적을 고수하기 위한 기운이 고조되였다.

사회주의력량은 좌절과 시련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하여 풍부한 경험과 교훈을 쌓았으며 보다 광범한 대중적지반을 갖추고 활력에 넘쳐 전진하기 시작하였다.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니까라과 등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을 비롯한 많은 나라와 지역들에서 자본주의는 인류가 안고있는 문제들을 더는 해결할수 없다고 하면서 반제사회주의길로 방향전환하였다.

한편 21세기에 들어와 미국의 금융경제위기가 자본주의세계전반의 위기로 확대되는 속에 근로대중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 세계적판도에서 전개되였다.

《우리는 99%이다》, 《세계는 인민이 지배해야 한다》는 구호밑에 자본주의경제의 심장부이자 독점자본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미국 뉴욕 맨하탄의 월가에서 타오른 투쟁의 불길은 세계 80여개 나라 1,500여개 도시를 일제히 휩쓸며 자본주의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여러 나라에서 소수 특권계층이 아니라 대중의 리익을 중시하고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지향하는 진보정당, 인사들이 선거에서 승리하여 집권하였다.

어제날 《자본주의의 승리》를 떠벌이던 서방의 정객들이 스스로 《자본주의의 종말》을 인정하고 사회주의에 대한 비난이 찬양으로 뒤바뀌였다.

일본에서 진행된 《자본주의의 미래》에 관한 연단에서는 《자본주의의 적은 더이상 사회주의가 아니다. 새로운 적은 자본주의의 사상관념 즉 자유방임주의이다.》라는 주장이 울려나왔다.

평양선언에 고무되여 사회주의가 하나의 시대적류행처럼 번져지는데 당황망조한 미국을 비롯한 력사의 반동세력은 시대의 흐름을 똑바로 볼 대신 또다시 히스테리적발작인 제2의 《맥카시선풍》을 일으켰다.

미국은 세계적규모에서 《신랭전》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더 많은 추종세력들을 반미사회주의세력을 교살하기 위한데로 내몰았다.

몇해전 미국의 VOA방송은 미국분석가들이 북조선의 핵도미싸일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사회주의재생을 부르는 평양선언이 더 큰 우환거리라고 말한데 대해 전하면서 평양선언은 조만간에 미국의 새 세계전략과 새 국제질서수립, 직접적으로는 미국의 안전과 리익에 거대한 파멸적재난을 가져올수 있다고 평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가장 큰 우려가 무엇이며 평양선언발표후 오늘에 이르는 기간 보다 악랄해진 대조선압살정책이 어디에 기인하고있는가를 말해주고있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책동은 반사회주의책동의 집중적발로이며 그 축도이다.

평양선언이 발표된 1990년대에는 물론 우리를 《악의 축》으로 매도하던 21세기의 초엽부터 《아시아에로의 복귀》전략에 매달리고있는 오늘까지 가증되여온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책동은 신랭히도 랭전을 선포하던 20세기 중엽을 방불케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직후 세계제패를 위해 랭전을 선포한 미국은 《조선의 지정학적요인》을 떠들며 《미국의 모든 성공이 달려있는 리념상의 싸움터》, 《미국식민주주의와 공산주의사이의 대결의 시험장》으로 규정하고 그 물리적산물로서 1950년대의 조선전쟁을 일으켰던것이다.

조선의 변함없는 지정학적위치와 갈수록 높아가는 국제적영향력은 미국을 더욱더 불안과 공포에로 몰아갔다.

력사의 온갖 격변속에서도 사회주의신념을 확고히 고수하고 세계사회주의운동을 선도해나가고있는 조선은 어제날의 사회주의《동방초소》가 아니라 사실상 제국의 운명을 결판낼수도 있는 사회주의의 본영으로 되였다.

지난 전쟁에서 미국에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대참패와 수치를 안긴 조선이 정의의 절대병기까지 보유한것은 《대결의 시험장》이 조선이 아닌 미국으로 옮겨지고 미본토가 최후의 전장으로 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지난 20여년간 미행정부가 여러차례 바뀌였지만 대조선적대시정책만은 갈수록 악랄해지고있는것은 이 최악의 씨나리오때문이였다.

미국은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외교 등 모든 분야에 걸치는 대조선제재압박책동과 함께 우리 사상, 우리 제도를 헐뜯기 위한 갖은 모략소동에 끈질기게 매달려왔으며 지어 우리의 최고존엄을 훼손시켜보려고 비렬한짓도 서슴지 않았다.

《전제주의》, 《병영식》따위의 비난이 며는 통하지 않자 《화폐위조국》, 《마약밀매국》 등 얼토당토않는 감투들을 씌우기 위한 모략극들을 련이어 꾸며내고 장차관급도 모자라 대통령까지 나서서 《인권유린국》조작에 날뛰였다.

오늘날 대조선《선제타격》까지 운운하며 조선반도정세를 최극단에로 몰아가고있는 미국의 광적인 추태는 우리의 사회주의가 전진하고있으며 승리하고있다는 더없이 명백한 증명으로 된다.

몇해전 로씨야신문인 《로씨스까야 가제따》는 《평양은 모든것을 얻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20년간 북조선이 외부의 가장 가혹한 압력을 받고 온갖 고난을 다 겪으면서도 생존해왔다는 사실자체가 북조선지도자들의 비범한 자질에 대해 말해주고있다. 북조선은 다른 많은 국가들이 정치로선을 바꾸거나 세계정치지도에서 아예 사라진 기간에도 살아남았으며 지금도 계속 존재하고있다.》고 전하였다.

남조선의 한 인터네트신문은 《북이 가장 강한 리유》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은 국토가 요새화되여있고 전세계 어디든지 타격할수 있는 막강한 미싸일전력과 그 미싸일에 장착할 핵무기도 준비되여있다. 이런 물리적준비보다 더 무서운것은 북의 일심단결이다.》라고 밝혔다.

《북조선인들은 모든것을 자체로 만드는 법을 배웠으며 자기가 이룩한 성과들로 벌써 오래전에 과학생산적토대를 구축하였다. 명백한것은 북조선이 자체의 힘으로 모든것을 달성하였다는 사실이다.》

《북조선이 엄혹한 국제적압력을 받으면 붕괴될것이라고 생각하는것은 올가미바줄로 반짝이는 별들을 잡겠다는것이나 같다.》

이것이 오늘 조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명정대한 평가이다.

세계최대의 정보망과 전략기구를 자부하는 미국이지만 조선의 사회주의의 본질을 모르는데 바로 《초대국》의 비극이 있다.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돈이나 원자탄이 아니라 위대한 사상이다.

조선의 사회주의는 바로 인류사상사의 최고봉을 이루는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확고히 내세운 사회주의, 그 길에서 한치의 드팀도 한걸음의 양보도 모르는 사회주의가 바로 조선의 사회주의이다.

위대한 당, 위대한 사상에 의하여 지도되고 핵무기로도 깨뜨릴수 없는 일심단결과 무진막강한 군력, 불가능을 모르는 인민의 무궁무진한 자강력을 원동력으로 하고있는 여기에 조선의 사회주의가 승승장구하는 비결이 있다.

* *

평양선언발표후 지난 25년간 조선의 사회주의가 세계에 준 의미는 자못 크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새로운 주체100년대진군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는 또 한분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조선의 사회주의는 21세기의 광명한 미래를 앞장에서 개척하며 전진하고있다.

이 세상 어느 민족, 어느 계급도 누릴수 없었던 수령복, 당복에 어느 나라, 어느 인민도 가질수 없었던 막강한 국력까지 다 갖춘 조선의 힘은 무궁무진하다.

최후승리는 주체의 사회주의에 있다.

성스러운 혁명위업에 바쳐진 고귀한 한생

조선의 어머니 강반석녀사의 탄생 125돐을 맞으며

조국과 민족을 위한 혁명의 길에 한평생을 다 바치신 만경대혁명일가분들의 투쟁업적은 세월이 흐를수록 천만군민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한가정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착취와 압박이 없는 인민의 지상락원을 일떠세우기 위한 성스러운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신 조선의 어머니 강반석녀사!

어느덧 세월은 멀리도 흘렀다. 하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은 김형직선생님께서 유산으로 물려주신 두자루의 권총을 위대한 수령님께 넘겨주시던 력사적인 순간이며 원쑤들의 삼엄한 감시속에서도 무기를 운반하신 사실을 비롯하여 강반석어머님의 잊지 못할 모습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어머님은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한생을 바치시였습니다.》

1892년 4월 21일 애국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시여 성장하신 강반석어머님께서는 일찍부터 나라잃은 민족이 당하는 모진 수난속에서 열렬한 반일애국정신을 키우시였으며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지니시고 조국해방을 위한 투쟁에 고귀한 한생을 바치시였다.

강반석어머님께서는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을 적극 도우시였으며 자제분들을 위대한 혁명가로 키우기 위해 모든것을 다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하혁명활동을 하시던 시기 4~5명의 공청원들과 함께 무송시가에서 적들의 포위에 드신적이 있었다. 적들과 전투를 하면서라도 포위를 뚫고 헌성밖으로 나가야 하였다. 그런데 총이 없었다. 무기는 적들의 삼엄한 경계를 뚫고 말리허라는 곳의 혁명조직에 가야 가져올수 있었다.

그때 강반석어머님께서는 그까짓것 못하겠니, 내가 가서 가져오마라고 하시면서 말리허로 가시였다. 그리고 그곳 혁명조직성원들로부터 무기를 받아 함지안에 감추어가지고 위험한 고비를 넘기시며 돌아오시였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 권총들은 방아쇠만 당기면 총알이 나갈수 있게 되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몹시 놀라시며 큰일날번했다고 말씀드리시였다. 공청원들의 놀라움 또한 컸다.

그러자 강반석어머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내가 너희 동무들을 보고 새워달라구 했다, 놈들이 이 함지를 수색하면 답새기자구 말이다, 기껏해야 두놈이나 세놈쯤 달려들겠지, 접어들면 한놈이라도 쏘고 나도 죽을 생각이였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어머님의 그 말씀속에는 보통의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결심하기 어려운 고결한 넋이 깃들어있었다.

세상에는 녀성혁명가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수많이 전해지고있다. 하지만 강반석어머님과 같이 혁명의 초행길에 그렇듯 거룩한 자욱을 새기신 위대한 어머니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창건된 반일인민유격대 대원들의 틈틈한 모습을 대전하게 바라보시며 그리도 기뻐하시던 강반석어머님의 모습은 오늘도 만사람의 가슴을 울린다.

첫 무장대오의 창건을 위하여 그이께서는 병약하신 몸으로 부녀회원들을 이끄시고 군복을 만드시였다. 군량미도 어머님께서는 풀죽으로 끼니를 에우시며 마련하시였고 생명의 위험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무기도 구해오시였다.

모진 시련과 고초를 참고 이겨내시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무력창건사업을 일심전력을 다하여 받들어오신 강반석어머님이시였다.

하기에 갓 창건된 반일인민유격대가 안도현성에서 열병행진을 하던 날 어머님을 맞이한 유격대원들은 격정에 넘쳐 어쩔바를 몰라했던것이다.

병고에 시달린 얼굴, 미간에 생긴 주름살, 머리의 흰오리, 그러나 어머님의 눈은 고요히 웃고있었다.

유격대원들의 군모에 빛나는 오각별이며 그들이 멘 총이며 탄띠를 만져보시던 어머님께서는 그들모두를 한품에 안아 쓰다듬어주시며 말씀하시였다.

《정말 장하구나. 우리 군대가 생겼으니 이제는 됐다. 왜놈들을 치고 나라를 꼭 찾아야 한다!》

이 소박한 말씀에는 참으로 숭고한 인생관이 빛발치고있었다.

혁명을 하자면 총을 잡아야 한다!

총을 잡았으면 끝장을 볼 때까지 오로지 목적한바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바로 이런 혁명의 진리를 강반석어머님의 말씀에서 더욱 깊이 체득한 우리 혁명의 1세들이였다.

총대를 더없이 귀중한 혁명의 재부로 여기신 불굴의 녀성혁명가이시였기에 강반석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 그리도 가슴뜨거운 화폭을 력사에 남기시였다.

반일인민유격대의 남만원정을 앞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좁쌀 한말을 가지고 소사하의 토기점골에 계시는 어머님을 찾으시였다.

그때 강반석어머님의 병세는 위급하였다. 음식도 들지 못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산에 올라 땔나무를 하시면서 어머님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을 놓지 못하시였다. 어떻게 해야 할지 결심을 내리기 어려우시였다.

그 마음을 헤아려보신 강반석어머님께서는 집걱정은 말라고 하시면서 네가 집을 떠나서 혁명사업을 잘하면 내 병이 다 나을수도 있다, 그러니 너는 부대를 데리고 곧 떠나거라, 그것이 내 소원이다라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집을 나서시며 어머님께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고개숙여 인사를 드리시였을 때였다.

어머님께서는 병색이 짙은 얼굴에 미소를 지으시면서 어서 떠나거라, 아무래도 갈길인데라고 하시며 인차 방문을 닫으시였다. 그때 어머님의 심정이 과연 어떠하시였으랴.

강반석어머님의 그날의 그 모습은 정녕 한가정의 울타리를 멀리 벗어난 위대한 스승의 모습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 어머니가 내앞에서 집걱정을 하였거나 내 마음의 량재를 늦추는 말씀을 단 한마디라도 하였더라면 짓을 려고 대공으로 날을 차비를 하던 이 아들의 심중에서는 어떤 파문이 일었을가라고 뜨겁게 회고하시였다.

조국과 민족을 위한 준엄하고도 시련에 찬 길에서 우리 수령님으로 하여금 철의 신념과 의지를 가다듬게 한것은 그 어떤 리념이나 철학적명제보다도 남만으로 떠밀어보내시던 강반석어머님의 위대한 혁명가적모습이였다.

가정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집근심보다 혁명을 먼저 생각하신 강반석어머님의 남다른 혁명세계를 언제나 잊지 않으시였기에 준엄한 선군혁명의 길을 꿋꿋이 헤치시여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시고 이 땅우에 사회주의락원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부강한 조국을 그리도 바라시던 강반석어머님의 숭고한 념원은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시는 선군시대에 더욱 활짝 꽃펴나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천만년 세월이 흐른대도 강반석어머님의 불멸의 업적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받들어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전광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태양절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을 만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20일 만수대의사당에서 권순휘 총련중앙상임위원회 고문을 단장으로 하는 태양절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을 만나 동포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관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불멸의 업적을 깊이 새겨주며

황주군 장천리당위원회에서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속에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깊이 새겨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도록과 회상실기들에 대한 학습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것을 어김없이 집행해나가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얼마전 제7작업반에 나간 리당위원회의 한 일군은 나라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사실자료를 들어가며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농장에 깃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높은 알곡생산성과로 빛내여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지금 이곳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자욱이 어려있는 영광의 땅에서 살며 일하는 긍지를 안고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로농통신원 홍철남

령도업적단위들이 대고조진군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린다

무쇠철마의 동음높이 승리의 대회장으로

금성뜨락또르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

금성뜨락또르공장 로동계급이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맞이한 기세로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새형의 뜨락또르계렬생산에 진입할수 있는 수천건의 기술공정표 작성, 강질보장을 위한 새 열처리로 성과적으로 건설, 수천종에 달하는 1만여개의 부속품 가공, 뜨락또르다량생산 본격적으로 추진.

당이 제시한 자강력제일주의를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쥔 공장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일터마다에서 애국충정의 피를 펄펄 끓이며 자랑찬 승전포성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울려간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기계공장들에서 현대화를 다그치고 새형의 뜨락또르와 륜전기재, 다용도화된 농기계들의 계렬생산공정을 완비하며 여러가지 성능높은 기계설비들을 질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합니다.》

잡도리부터가 만만치 않다. 공장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새형의 뜨락또르생산목표부터 통이 크게 내세웠다.

뜻깊은 10월까지 새형의 80hp뜨락또르 수백대를 생산보장, 빠른 기간안에 년산 수천대 능력의 계렬생산공정을 우리의 힘과 기술로 확립하는것, 바로 이것이 당이 번개를 치면 우레로 화답하며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향해 돌진해나가는 이들의 대담한 전투목표이다.

전공장적으로 벌어지는 현장입식 화선선전, 화선선동이 그들의 가슴가슴을 세차게 격동시키고있다. 힘차게 나붓기는 붉은기들,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조에로 부르는 글발들과 다양한 직관선전물들, 로동계급의 심장마다에 격동의 불을 다는 힘있는 경제선동으로 하여 말그대로 모든 전투장들이 용광로마냥 부글부글 끓어번진다.

어버이수령님의 령도따라 첫 《천리마》호뜨락또르의 탄생으로 위대한 천리마시대를 들끓게 하였던것처럼 수백대에 달하는 새형의 뜨락또르들을 기어이 생산하여 만리마선구자대회장으로 향한 승리의 열병행진을 장쾌하게 펼쳐놓자!

이런 한결같은 의지와 철석의 맹세를 새겨안은 공장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원대한 포부와 확고한 신심에 넘쳐 총진군의 보폭을 더욱 힘차게 내짚고있다. 이 땅에서 경제강국건설의 승전포성이 울리지 못하게 하려고 최후발악하는 온갖 원쑤들을 사회주의수호전의 철마로 단호히 짓뭉개버리며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갈 혁명적기상이 일터마다에 세차게 나래친다.

폭풍안고 비약하는 총진군대오의 앞장에 일군들이 섰다. 조건타발을 앞세우며 우는소리만 하는 일군은 필요없다. 현장입식정치사상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며 모두가 생산자들속으로, 전투좌지를 가공과 조립현장에!

일군들이 들끓는 현장마다에서 전투조직과 지휘를 박력있고 참신하게 진행하는 한편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속에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기 위한 투쟁의 도수를 부쩍 높이고있다.

특히 자력자강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라는것을 심장깊이 새기고 두뇌전, 기술전의 불길높이 현대적인 계렬생산공정을 우리 식으로 확립하며 현행생산을 동시에 다그치기 위한 사업을 립체전의 방법으로 밀고나가고있다.

수직후라이스반을 비롯한 3대의 공작기계들을 CNC화하고 합유연생산체계의 가공중심반들을 기술개조하여 종전보다 가공정밀도를 1.5배이상으로 높이며 압연공정을 현대화하여 생산성을 2배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투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고있다.

제관직장과 조립직장에 굴푸작업을 보장하기 위한 설비들과 70여㎡의 가열도장작업장을 새로 갖추며 구상화흑연주철과 합금강을 도입하여 치차생산의 질과 속도를 다같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추진되였다.

목형, 주물, 제관, 변속기, 치차직장을 비롯하여 단조품생산과 부속품가공을 맡은 직장들에서 수십대의 뜨락또르를 집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증산총돌격전이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다.

주강직장 전기로1, 2작업반에서 하루 4차지이상의 용해작업을 책임적으로 보장하며 진격의 돌파구를 힘차게 열어제낀 때 현대화직장에서는 1.4분기 자동인양기본체가공과제를 20일이상 앞당겨 완수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특히 합유연직장 가공2작업반의 기능공들이 맡은 과제를 4월안으로 끝낼 열의밑에 일별계획을 200%이상으로 넘쳐 수행하는 눈부신 로력적위훈을 창조하고있다.

공장의 청년기술자들과 기능공들도 천군만마와도 같은 폭풍기상으로 대고조전투장들을 청년판으로 들썩하게 만들데 대한 강원도정신창조자들의 호소문에 화답하여 CNC종삭반의 조종체계를 우리 식으로 개조하고 맡겨진 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하면서 청춘의 자서전에 영웅적위훈을 자랑차게 새겨가고있다. 《천리마선구자의 노래》 힘차게 울리며 전설속의 천리마가 세기를 주름잡던 그때처럼 《우리는 만리마기수》의 노래를 우렁차게 부르며 기적의 만리마가 세계를 디디고 날아오르게 하자는것이 이곳 청년혁신자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이들모두는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고귀한 피와 땀을 바친 혁명의 전세대앞에 한점 부끄럼없이, 후대들의 맑은 눈동자에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강성번영기를 열어놓은 만리마속도창조대전의 영예로운 참전자로 떳떳이, 자랑스럽게 비낄수 있게 하루하루를 기적과 위훈으로 빛내여가고있다.

내각과 기계공업성의 적극적인 지도와 힘있는 방조밑에 공장에서는 새형의 뜨락또르제작에 필요한 자재보장을 앞세우면서 년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기 위한 립체전을 더욱 과감히 전개해나가고있다. 이 보람찬 투쟁속에 목형제작과 변속기, 치차가공 등에서 전례없는 혁신이 일어나고 뜻깊은 4월에도 충정의 전투기록장들에 자랑찬 위훈창조의 페지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하여 새형의 뜨락또르들에 대한 시운전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수백대분의 주요부분품 및 부속품가공을 집적으로 다그치고있다.

기어이 우리의 힘과 기술로 사회주의수호전의 철마들을 짧은 기간에 다량생산해냄으로써 어머니당에 충정의 보고, 승리의 보고를 하루빨리 올릴 불타는 애국충정으로 심장의 피를 펄펄 끓이고있는 금성뜨락또르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자력자강의 기세드높이 총매진, 총돌격해가고있다.

본사기자 정 순 성

자력자강으로 피워가는 소금꽃

원산제염소에서

원산제염소에서 올해에 들어와 례년보다 보름이나 앞당겨 소금꽃을 피웠다. 주목되는것은 2월에 햇소금이 나올 때 지난 시기보다 50여t이나 더 많은 소금이 생산된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자기의 힘밖에 없습니다.》

원산제염소에 바둑판같이 펼쳐진 소금밭은 무려 수백정보에 달한다.

그처럼 드넓은 소금밭을 제 집터밭처럼 알심있게 다룬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소금생산과정에는 계절과 자연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렇듯 엄혹한 생산조건에서도 제염소와 강원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드넓은 소금밭의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고 알뜰히 다루어 소금생산량을 갈수록 늘이고있다.

서해와 달리 동해기슭에서의 소금생산은 바다물을 저류지에 끌어들이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지금 이 공정에서는 고압전동기들의 동음이 중단없이 울리고있다. 덩지가 큰 이 설비들의 가동모습에는 단순히 설비들의 능력만이 비껴있는것이 아니다.

지난 시기 시간당 많은 바다물을 퍼올리는 고압전동기들에 고장이 생길 때에는 부득불 큰 단위에 가서 수리해오군 하였다. 그때마다 소금생산에서는 적지 않은 파동이 있었다. 바쁜 농사철에 때를 놓치면 알찬 열매를 기대할수 없듯이 설비가동률이자 소금생산량이라고 볼 때 이것은 기본생산에서 큰 공백이라고 할수 있었다. 하기에 제염소에서는 전동기들의 가동일수를 높일수 있게 자체의 수리기지를 꾸리기 위한 대담한 목표가 세워졌다.

그후 제염소적으로 종량이 여러에 달하는 설비들의 수리에 필요한 부속품확보를 위해, 때로는 자체로 만든 부분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흘러온 분분초초는 그야말로 격동의 순간순간으로 이어졌다. 결과 자체의 전동기수리기지가 꾸려진 때로부터 소금생산이 지장을 받던 일은 가뭇없이 사라졌다.

온 한해동안 눈처럼 하얀 소금꽃을 피우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도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제염소에서 겨울철의 불리한 일기조건에서도 협금법에 의한 짠물생산에 성공한 사실도 소금생산의 장성을 안아올수 있게 한 또 하나의 비결이다.

제염소에서는 지난 시기와 달리 맵짠 바람이 기승을 부리는 겨울철의 이른새벽에도 새로운 숨결이 약동하군 한다. 제염공들이 밤새도록 형성된 얼음이 해가 솟으면 녹아버릴세라 엄혹한 추위를 밀어내며 얼음제거를 위한 전투에 뛰여드는것이다.

우리가 지켜선 소금밭도 다름아닌 전초선이다.

이런 신념을 만장약하였기에 어려운 조건에서도 오직 제힘을 믿고 떨쳐나서는 이들앞에 언제나 불가능이란 없다.

소금밭의 감량제거를 위해 고심어린 탐구를 기울이는 과정에 창안된 나무타일을 도입한 결과 소금이 더욱 정결해지고 생산주기도 훨씬 빨라졌다. 해풍으로 방파제의 일부 구간이 무너졌을 때에도 제염공들과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소금생산을 도저히 기대할수 없다던 주장을 타파하고 최단기간에 복구전투를 벌려 정보당 수십t의 소금을 생산하였다.

우리가 제염소를 떠날 때 도지방공업관리국 부국장동무는 제염공들과 소금생산정상화를 위해 원심을 쓰고 물심량면으로 기여한 시, 군당위원회와 인민위원회, 각급 공장, 기업소일군들과 지원자들을 꼭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의 말을 들어보니 도안의 수많은 단위들을 다 꼽을 잡도리였다. 모든 단위를 다 부른대도 우리의 마음은 흥그러웠다. 그들모두가 다름아닌 강원도정신창조자들이기때문이였다.

그 어떤 조건에서도 제힘을 믿고 자력갱생하는 이런 만리마기수들에 의해 동해기슭의 제염소에서는 오늘도 계절을 모르는 소금꽃이 끝없이 피여나고있다.

본사기자 지 원 철

조국을 떠받드는 억센 뿌리가 되리

서두수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

만리마시대의 약동하는 숨결을 지켜 북방의 험준한 산속에서 거목을 떠받드는 뿌리와도 같이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서두수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이다.

1월과 2월에 이어 3월에도 전력생산계획을 또다시 완수, 이것이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이곳 로동계급의 힘찬 발걸음이다. 어제가 없는 오늘이 없듯이 이들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창조해가고있는 혁신적성과들은 효률높은 타빈과 수자식려자기의 도입, 여러 언제들에 대한 시추주입을 비롯하여 전력생산의 정상화를 위해 줄달음쳐온 헌신적투쟁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의 뿌리가 되자, 이것이 오늘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지녀야 할 인생관입니다.》

이들에게 제일 난문제로 나선것은 3호발전소 2호기의 진동문제였다. 정밀한 운전을 보장해야 하는 발전기회전축이 진동하면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수 있었던것이다.

이곳 전력생산자들은 지체없이 그 원인을 찾아 퇴치하기 위한 대보수전투에 진입하였다.

황성룡, 박찬일, 홍순길, 류응섭동무를 비롯한 기술일군들이 사색과 론의를 거듭하며 발전기의 진동문제가 오랜 기간의 운영과정에 회전자축과 상부토시사이의 틈에 의해 발생된것이라는것을 밝혀냈다.

많은 사람들이 회전축을 완전히 분해한 후 다시 가공하여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팔방을 끼고 수천리 떨어진 대상설비제작기지에서 다시 가공해오기를 언제까지나 기다릴수는 없었다.

혁명의 년대들마다 전력증산으로 당중앙을 결사옹위해온 전세대들의 투쟁기풍으로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기 힘을 믿고 대담하게 달라붙었다.

대보수전투장은 삽시에 격전장으로 화하였다.

일군들과 로동자들속에서 필요한 지구장비를 제작하여 회전축이 조립된 상태에서 가공할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제기되였다.

리영철, 김원식동무를 비롯하여 오랜 경험과 기능을 가진 대보수작업반과 3호보수작업반의 로동자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나갔다.

창조의 날과 날이 흘러 찾아온 첫 시운전의 날, 모두가 성공에 대한 기대속에 발전기를 가동시켰으나 결과는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

모두가 맥을 놓고 주저앉았던 그때 발전소의 당, 행정책임일군들이 앞채를 멨다.

언제나 대오의 앞장에서 힘을 주고 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당책임일군 원일학동무의 불같은 호소는 자그마한 난관앞에 순간이나마 나약해졌던 대보수전투원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지배인 김철호동무는 전반사업을 지휘해야 하는 바쁜 속에서도 로동자들의 앙양된 기세에 발맞추어 대보수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능동적으로 풀어나갔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들은 3호발전소를 찾으시여 전력생산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 가르치심을 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사진문헌을 우러르며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가다듬군 하였다.

끝내 이들은 짧은 기간에 자체의 힘과 기술로 회전축을 해체하지 않고 진동문제를 완전히 해결함으로써 발전기출력을 종전에 비해 더욱 높이였다.

로쇠와 침체, 안일과 해이를 불사르며 승리에서 더 큰 승리에로 비약하려는 이들의 열망은 발전기보수와 함께 수자화된 려자기를 도입하기 위한 립체적인 전투에서도 성과를 거두게 하였다. 종전의 기계식려자기를 리용할 때에 비해 복류발전기와 려자발전기를 비롯한 많은 설비들을 쓰지 않으면서도 전력생산의 정확성과 신속성, 믿음성을 담보하는 수자화된 려자기는 이곳 로동계급의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다시금 엿볼수 있게 하고있다.

든든한 뿌리가 없는 나무가 거목으로 성장할수 없듯이 조국도 뿌리와 같은 애국자들이 없으면 강성번영할수 없다.

보이지 않는 땅속에서 쉬임없이 줄기에 영양소를 주는 뿌리처럼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인적드문 산속에서 오늘의 일분일초를 위훈창조의 순간순간으로 빛내여가는 이런 참된 인간들이 있어 우리 조국의 전진속도는 더욱더 빨라지게 될것이다.

심 학 철

현지보도 주체쇠물이 쏟아진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용광로직장에서

여기는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용광로직장 산소열법용광로 전투현장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고 혁명의 전성기를 대번영기로 이어나가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자라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적특질이며 투쟁기풍입니다.》

용해공들이 지금 마지막차지의 출선을 준비하고있다.

이글거리는 쇠물을 안고 《웅-》하고 용을 쓰는 우리의 산소열법용광로, 그 거세찬 숨결을 더해주듯 《쏴-》하고 소리내며 기운차게 돌아가는 송풍기, 원료와 연료를 싣고 수십m 높이에 있는 장입구로 쉬임없이 오르는 벨트콘베아…

사령원의 신호에 따라 조인철, 정금성동무들이 쇠장대를 들고 광재구에로 다가간다. 확확 내뿜는 열,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을념도 하지 않고 그들은 으스러지게 틀어쥔 쇠장대로 광재구를 련속 뚫으며 광재를 뽑아낸다. 그에 발맞추어 다른 용해공들은 오늘의 쇠물 한t한t이 그대로 부강조국을 떠받드는 또 하나의 강철기둥이 된다는 자각을 안고 쇠물길을 반듯하게 하고 주상정리를 다그친다.

《출선준비!》

로장의 구령소리가 울리자 순식간에 용해공들이 자기의 전투위치를 차지한다.

용광로안의 쇠물의 세계를 마음속에 안은 로장이 얼굴에 미소를 담고 우리에게 말한다.

《이제 몇분 있으면 불을 다루는 사람들만이 느낄수 있는 장쾌하고 희한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의 말과 함께 사령실에서 울리는 소리…

《출선!》

순간 막혔던 물목이 터지듯 출선구에서 뿜어져나온 불의 태하가 온 작업장을 열과 빛으로 물들이며 사품쳐흐른다.

주체화된 생산공정의 오늘을 위해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로고와 황철로동계급의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다시금 가슴뿌듯이 새겨보는 우리에게 작업반장 홍순철동무는 말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손길아래 마련된 우리 황철의 주체화된 생산공정마다에서 주체의 쇠물을 더 쾅쾅 뽑아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체철생산성과로 장식한 기쁨이 그만이 아닌 용해공모두의 구리빛얼굴에 넘쳐난다. 애국충정으로 끓이는 주체쇠물의 주홍빛이 비껴서인지 황철의 저녁노을은 더더욱 아름답게 보인다.

글 전 혜 영
사진 본사기자 김 종 훈

과학농사열풍을 세차게 일으키자

4월 하순까지 예견되는 기상조건과 농사대책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서는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야 합니다.》

4월 하순에 우리 나라는 조선동해 남부에서 강화되는 고기압과 북부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골의 영향을 여러차례 받을것이 예견된다.

그러므로 순평균기온은 전반적지역에서 평년정도이거나 평년보다 약간 낮겠으며 강수량은 북부내륙지역에서는 평년보다 약간 많고 그밖의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약간 적을것이 예견된다.

논벼농사에서는 벼모판씨뿌리기와 모판관리를 잘하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모내는 시기와 모종류별모판기간을 고려하여 씨뿌림시기를 바로 정하고 제때에 질적으로 끝내야 한다. 영양단지모와 영양압모, 영양랭상모의 특성에 맞게 씨뿌리기를 잘하여 튼튼한 벼모를 길러내야 한다.

뒤그루큰모씨뿌리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뒤그루큰모로는 다수확중간늦종이나 중간종을 심는것이 좋다. 벼모판밑비료주기를 잘하여야 한다.

벼모판관리를 잘하여 벼모를 튼튼히 길러야 한다.

벼모판바람쏘이기를 진행하는 조건에서 벼모판토양물기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모판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벼모판덧비료를 적기에 주어 튼튼한 벼모를 길러야 한다.

밭상태벼모판에서는 모판살초제처리를 잘하여 모판김을 제때에 잡아야 한다. 간석지논에서 벼모판씨뿌리기와 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모판에서 염피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밑비료를 주지 말고 덧비료로 주어야 한다.

논갈이와 써레치기를 다그치고 병해충구제대책을 세워야 한다.

강냉이농사에서는 영양단지모옮겨심기와 직파를 잘하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강냉이영양단지모를 튼튼히 키우고 모옮겨심기를 잘하여야 한다.

강냉이직파를 잘하여야 한다. 토양온습도조건을 고려하여 씨뿌림시기를 정하고 씨뿌리기를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평당포기수는 품종과 지력, 비료량에 따라 영양단지재배와 같은 포기수로 보장하여야 한다. 밑비료를 반드시 주어야 초기생육을 보장하고 소출을 높일수 있다.

강냉이영양알직파와 영양피복방법을 실정에 맞게 받아들일수 있다.

병해충구제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가을밀, 보리농사에서는 이삭아지비률을 높이고 이삭당 알수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이삭비료를 제때에 질적으로 주며 밀, 보리포전의 토양습도를 보장하여야 한다.

봄밀, 보리농사에서는 이삭아지수와 이삭당 알수를 높이기 위한 비배관리를 잘하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아지비료주기를 잘하고 포전에서 물관리대책과 이삭비료를 주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앞그루감자농사에서는 긴싹모감자심기와 애벌김매기를 잘하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긴싹모기르기를 잘하여 실한 모를 심어야 한다. 애벌김매기와 후치질을 잘하고 풍뎅이구제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누운가지가 생기는 시기의 비료주기를 잘하여야 한다.

고지대에서는 감자싹퇴우기와 포전준비, 감자를 적기에 심기 위한 준비를 잘하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감자종자싹퇴우기를 잘하여야 한다. 감자밭에 니탄과 퇴비를 비롯한 유기질비료실어내기를 빨리 끝내고 봄갈이와 써레치기를 잘하여야 한다.

농작물생육예보지휘부

실정에 맞는 영농기술을 도입

정평군 률성협동농장에서

정평군 률성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지난해에 선진영농방법과 기술을 받아들여 그 전해보다 정보당 소출을 훨씬 높이였다. 이 경험에 기초하여 농장에서는 올해 과학농사를 더욱 통이 크게 해나가고있다.

그러면 이 농장의 농사작전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농촌테제와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식량문제, 농업문제해결의 대강으로 틀어쥐고 끝까지 관철해나가야 합니다.》

지난 기간 이 농장의 정보당 알곡수확고는 높지 못하였다. 원인은 농장의 포전들이 토심이 얕은데다가 해마다 랭해를 받은데 있었다.

이 문제를 놓고 농장일군들은 토론을 거듭하였다. 그 과정에 그들은 지난 기간 단지모를 키워 농사를 지은 다른 농장의 경험에 주의를 돌리였다.

그러면 단지모에 의한 논벼농사방법이 우리 농장의 실정에도 맞는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일군들은 그 농장의 농사경험을 분석해보았다.

단지모에 의한 벼농사는 씨뿌리기와 모기르기에서 모판면적이 적은것으로 하여 많은 로력과 모판자재를 절약할수 있었다.

또한 모를 낸 다음 모살이기일이 짧아 논벼의 생육기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정보당 논벼소출이 높았다.

이렇게 되어 농장에서는 단지모를 키워 농사를 지었다. 하지만 한해농사결실은 좋지 못했다.

다른 농장들의 경험에 기초하여 단지모씨뿌리기를 하고 모내기, 비배관리도 같은 방법으로 하였는데 수확고에서는 왜 차이가 생겼는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일군들은 작업반별로 모내기한 날자와 아지를 친 정형, 이삭이 팬 날자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알고보니 불리한 날씨조건의 영향을 받아 아지치는 시기가 늦어진데로부터 이삭이 팬 이후 생육기일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었다.

일군들은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도를 모색하는 과정에 뒤그루큰모에 관심을 돌리게 되였다.

큰모는 모판에서 유효아지를 기본적으로 친 다음 모를 내는것으로 하여 단지모에 비해 모내는 시기가 퍽 늦어진다. 그러나 모내기날자가 늦어지는것만큼 대기온도가 올라 논판의 물온도가 높아져 랭해의 영향을 받지 않을수 있었다.

이런 과학적인 타산에 기초하여 일군들은 앞그루로 감자를 심고 큰모에 의한 벼농사방법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일군들은 작업반들에서 시험포전을 정하게 하였다. 그리고 시험포전들에 앞그루감자를 심게 하였다. 한편 벼모판씨뿌리기를 적기에 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여 작업반들에서는 앞그루감자심기와 벼씨뿌리기를 하였다. 그후 작업반들에서는 감자를 캔 다음 큰모를 내였다.

가을에 가서 보니 정보당 알곡수확고가 다른 포전들보다 훨씬 높았다.

농장일군들이 또 한가지 잘한것은 논벼뿌리썩음병이 생기는 포전들에 대담하게 이랑재배와 두둑재배방법을 받아들이게 한것이다.

이 농장에는 논벼뿌리썩음병이 생겨 정보당 논벼수확고가 떨어지는 포전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기간에는 누구나 어쩔수 없는것으로 여기였다.

이 문제를 놓고 농장일군들은 다른 농장들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았다. 그 과정에 어느 한 농장에서 논벼 이랑재배와 두둑재배방법을 받아들여 뿌리썩음병을 막았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농장일군들은 즉시 해당 부문 일군들과 긴밀한 련계를 가지면서 이 영농기술을 받아들이였다. 결과 뿌리썩음병이 예방되고 정보당 알곡수확고가 높아졌다.

경험은 이 농장의 일군들처럼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영농방법과 기술을 받아들일 때 아무리 불리한 일기조건에서도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특파기자 김 경 철

모판관리에서 중시한 문제

철산군 근천협동농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영농방법에서 혁신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봄철영농전투에 떨쳐나선 철산군 근천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투쟁기세가 고조되고있다.

올해농사에서 기어이 풍작훈을 부르고 만리마선구자대회장에 떳떳이 들어서자.

이런 결심을 가다듬으며 그들은 지난해보다 강냉이를 정보당 1t이상 더 생산할 높은 목표를 세웠다.

대부분의 농경지가 토심이 얕은 세비레땅으로 되여있는 조건에서 이런 소출을 낸다는것은 쉽지 않다.

과연 승산이 있는가. 이곳 농장원들은 한결같이 과학농사열풍을 일으킬데 대한 당정책을 자로 하여 농사를 지으면 다수확은 문제없다고 말하고있다. 이런 철석의 신념을 간직한 그들이였기에 당면한 강냉이영양단지모판관리도 기술적요구대로 잘해나가고있다.

지난해만 보더라도 제2작업반에서 다른 작업반들보다 정보당 평균 1t의 강냉이를 더 생산할수 있은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튼튼한 영양단지모를 키운데 있었다.

관리위원장 김영길동무를 비롯한 이곳 일군들은 영양단지모판관리가 튼튼한 모를 키우는데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것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과정에 튼튼한 모의 징표를 갖추도록 하자면 온도관리를 잘하며 특히 고온피해를 막고 헛자라지 않게 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는것을 다시금 인식하게 되였다. 그것은 모가 헛자라는 경우 뿌리가 잘 뻗지 못하고 영양물질을 빨아들이는 힘이 약해지며 옮겨심은 다음 모살이가 늦어지는것은 물론이고 초기생육이 매우 나빠지기 때문이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팔뚝같은 강냉이이삭도 튼튼한 모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었다.

이로부터 일군들은 영양단지모판관리를 기술적요구대로 진행하여 강냉이생산을 높일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기로 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큰 힘을 넣었다. 여기서 중요한 고리로 틀어쥔것이 바로 과학농사의 주인은 농장원대중이라는 관점에서 그들을 농업과학기술로 무장시키기 위한 현장기술지도를 실속있게 해나간것이다.

일군들은 농장원들속에 깊이 들어가 영양단지모판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리치를 따져가며 하나하나 알기 쉽게 알려주었다. 그들은 박막관리에 힘을 넣어 온도보장을 잘해야 한다는것 특히 싹이 나온 후 모판안의 온도가 필요이상 오를 때에는 제때에 박막을 벗기고 바람쏘이기를 해야 한다는것을 농장원들에게 원리적으로 깊이 인식시키였다. 뿐만아니라 잎이 3잎정도 되였을 때 잎을 모아쥐고 1/3정도 잘라주면 키가 작아지고 대도 굵어지며 뿌리가 튼튼해져 헛자라는 현상이 없어진다는것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었다. 그리고 농장원들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농사작전과 지휘, 경영관리를 더욱 짜고들었다. 일군들은 총화평가사업을 정확히 하는 한편 농장원들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제때에 풀어주고 오랜 실농군들을 적극 우대해주면서 대중의 열의를 더욱 높여주었다.

승리의 결승선에 남먼저 들어서려는 열의드높이 과학농사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 다수확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는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투쟁은 반드시 훌륭한 작황을 안아오고야 말것이다.

본사기자 황 철 민

청춘시절을 값있게 빛내여가리

만포고치농장으로 자원진출한 만포시안의 고급중학교졸업생들

당의 부름에 호응하여 탄광과 광산, 농촌을 비롯한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달려나가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치며 부강조국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하는것은 우리 조선청년들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지난 3월 만포시안의 수십명 고급중학교졸업생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명도자욱이 뜨겁게 어려있는 만포고치농장 청년작업반으로 집단진출하였다.

지금으로부터 27년전 렛케비촌련속국 《수업은 계속된다》의 원형들인 만포시 봉화고등중학교(당시) 35명이 이 농장에 뿌리를 내린데 이어 17년전에는 시안의 고등중학교(당시) 56명 졸업생들이 또다시 탄원하였다.

만리마속도창조대전이 벌어지고있는 때에 전세대 청년들의 뒤를 이어 만포고치농장으로 진출하는 수십명의 고급중학교졸업생들을 만포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열렬히 축하해주었다.

미더운 새 세대 청년들의 가슴가슴은 자강도를 잠업도로 전변시켜 인민생활을 향상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현실로 꽃피우는 길에 귀중한 청춘시절을 아낌없이 바친 전세대 청년들처럼 더 많은 누에고치를 생산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릴 하나의 슬결로 세차게 맥박치고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청년들이야말로 온 세상이 부러워하도록 높이 떠받들어주고싶은 애국적이고 영웅적인 청년들이며 이런 미더운 청년대군을 가지고있는 것은 조선로동당의 큰 복이고 조선의 자랑이며 바로 여기에 존엄높은 우리 국가의 강대성과 창창한 미래가 있습니다.》

지난 2월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만포시안의 고급중학교졸업반학생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만포고치농장을 찾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난 몇해동안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다녀가신 전망대와 도로관리사업에 백옥같은 충정의 마음을 바쳐온 그들이였다.

이날 만포고치농장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에 대한 참관을 진행하면서 졸업반학생들은 농장에 새겨진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가슴뜨겁게 새겨안았다.

연혁소개실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사진문헌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그들은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자강도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려고 조국의 북변 한쪽 끝 삼갑명을 넘고 넘으신 우리 수령님들의 로고가 안겨와 눈굴을 적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전망대에 다시 올라 아득히 펼쳐진 뽕밭들을 바라보는 졸업반학생들의 눈앞에는 수령님들의 념원을 현실로 꽃피우는 길에 귀중한 청춘시절을 후회없이 바쳐온 전세대 청년들의 투쟁모습이 우렷이 안겨왔다.

문득 졸업반학생들을 안내하던 고치농장 지배인에게 고개고급중학교 김은항학생이 물었다.

《〈강범〉지배인아저씨, 저 앞산의 뽕나무들은 그때 청년작업반원들이 심은것입니까?》

렛케비촌련속국 《수업은 계속된다》에서 강범이의 원형인 문학수동무는 분조장과 청년작업반장을 거쳐 지배인으로 성장한 일군이였다. 그런 까닭에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친근하게 《강범》 지배인이라 부르고있었다.

지배인 문학수동무는 끝없이 펼쳐진 뽕밭들을 감회깊이 바라보며 자기들이 농장으로 집단진출하여 청년작업반을 꾸린 그때 무더 에어린 뽕나무들을 심고 애지중지 가꾸며 더 많은 누에고치를 생산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낮과 밤을 보내던 잊지 못할 나날들을 감동깊이 이야기해주었다.

지배인은 그때 담임교원이였던 박영실선생님이 지배인으로 사업하였고 오늘은 선생님의 뒤를 이어 자기가 지배인으로 일하고 있다고, 학생들은 앞으로 그 어느 초소에 가서도 전세대들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정다해 받들어나가야 한다고 목메인 소리로 말하였다.

지배인의 말을 듣는 그들의 가슴속에는 전세대들이 넘겨주는 제주봉을 청년강국의 주인공들인 자기들이 넘겨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잡고있었다.

며칠후 고개고급중학교 김광혁학생을 비롯한 졸업반학생들은 한자리에 모여앉았다.

《나와 길은항동무는 학교를 졸업하면 고치농장에 뿌리를 내리기로 결심했다.

우리모두 고치농장에 진출하여 누에고치생산을 늘일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기어이 관철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 편지를 올릴것을 약속하자.》

그의 열렬한 호소에 김유정, 홍현, 김주호, 한철룡동무를 비롯한 졸업반학생들이 호응해나섰다. 뒤이어 군막고급중학교의 송혜정, 최영심, 류미향, 윤진리, 김광순, 독고선동무들과 전상고급중학교 졸업반학생들도 고치농장 청년작업반으로 진출할것을 결의해나섰다. 시안의 고급중학교들에서 졸업반학생들의 탄원열의가 날로 높아가고있을 때 고개고급중학교 교원 김은남동무도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당원이며 제대군인인 내가 전세대 청년들의 바통을 넘겨받도록 학생들을 이끌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밤새 뒤척이며 잠 못 이루던 그는 다음날 아침 아버지가 당일군으로 사업하던 고치농장에 학생들과 함께 진출할 자기의 결심을 어머니와 안해에게 터놓았다.

오래동안 교단에서 많은 제자들을 키워낸 김은남동무의 어머니는 아들의 결심을 눈물속에 들었고 적극 지지해주었다.

《정임이아버지가 가는 길은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어야 한다. 1990년대에 제자들과 함께 고치농장에 달려나가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드린 박영실선생님을 비롯하여 전세대가 걸어간 길을 새 세대들이 변함없이 이어갈수 있게 그들을 잘 이끌어주어라.》

김은남동무의 결심을 시당위원회와 학교당조직에서도 적극 지지해주었다.

이렇게 되여 학교도 다르고 학급도 서로 다른 수십명의 졸업반학생들과 김은남동무는 영광의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되였다.

지난 3월 만포고치농장 청년작업반으로 자원진출하는 졸업반학생들은 만포시에 모셔진 절세위인들의 태양상모자이크벽화에 꽃다발을 드리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고치생산을 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충정의 보고를 드릴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영광의 땅으로 들어서는 미더운 새 세대 청년들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농장에서는 영광의 땅에 뿌리내린 우리의 주인공들로 청년작업반 4분조를 조직하였다.

지금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전망대주변의 10정보 뽕밭을 맡아 뽕나무비배관리와 봄누에치기준비에 온넋을 바쳐가고있다.

지배인과 초급당위원장을 비롯한 농장의 일군들은 새 세대 분조원들에게 뽕밭비배관리지식과 보리도 가르쳐주고 전세대들의 투쟁이야기도 들려주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 앞장서도록 이끌어주고있다.

청년강국의 주인공!

이 고귀한 칭호를 가슴에 새겨안고 당이 부르는 초소에 달려와 선군청년전위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쳐가는 이런 미더운 청년들의 대오가 무성한 숲을 이루고있기에 우리 조국의 미래는 그처럼 밝고 창창한것이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김순홍

포항은하피복공장을 찾아서

창조와 혁신의 기상 나래친다

얼마전 우리는 만리마선구자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 포항은하피복공장을 찾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전투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대중을 위훈창조에로 부르는 구호들과 펄럭이는 붉은기, 붉은 줄들이 키돋음하며 푹푹 뻗어오른 경쟁도표, 혁신의 새 소식을 전하는 속보판 등은 앙양된 전투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고있었다.

《강원도정신창조자들의 불같은 호소를 피끓는 심장으로 받아안은 우리 종업원들의 열의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습니다. 우리는 지난 3월에 상반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였는데 지금의 기세로 나간다면 년간계획을 공화국창건기념일전으로 끝낼수 있습니다.》

지배인 방상일동무는 이렇게 말하며 우리를 재봉1작업반으로 안내하였다.

《이 작업반은 사회주의경쟁에서 1등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모범작업반입니다.》

지배인은 이렇게 말하며 작업반장 박봉희동무를 가리켰다.

지난 수십년동안 한 초소를 지켜온 박봉희동무는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작업반원들을 이끌며 언제나 혁신의 앞장에서 내달린다고 지배인은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알고보니 재봉1작업반의 로동자들은 서로 돕고 이끌면서 매일 전투계획을 150%이상 넘쳐 수행하고있었다. 지배인은 이어 우리를 과학기술보급실로 이끌었다.

과학기술보급실에는 콤퓨터를 비롯한 현대적인 설비들이 그윽히 갖추어져있었다.

동행한 일군은 공장에서는 과학기술보급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 가치있는 창의고안을 하여 상반년계획수행에 기여한 김성동무를 비롯한 평범한 로동자들이 착상의 명수들로 자라나고 많은 재봉공들이 높은 기능을 요구하는 제품도 척척 만들어낼수 있는 기능공들로 자라났다고 자랑을 담아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알고보니 지배인도 초급당일군도 창의고안중소유자들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것처럼 자력자강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입니다. 지난해 12월 우리 공장은 모범기술혁신단위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지배인은 우리를 제단작업반과 재봉2작업반으로 안내하였다.

강원도정신창조자들처럼 결사관철의 정신을 안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일손을 다그치고있는 로동자들의 미더운 모습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었다.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는 공장을 떠나며 우리는 확신하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여 만리마선구자대회장에 뻣뻣이 들어서리라는것을.

특파기자 리은남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5돐을 맞으며

공화국영웅과의 상봉모임 진행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5돐을 맞으며 공화국영웅과 로동계급, 직맹원들의 상봉모임이 20일 중앙로동자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서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강사 공화국영웅 지영춘이 발언하였다.

그는 백두밀림에서 창건된 조선인민혁명군을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직한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진정한 인민의 군대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군건설업적에 대하여 감동깊게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탁월한 전법, 명활한 전략전술들이 있었기에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용사들이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타승하고 빛나는 전승신화를 창조할수 있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빼앗겼던 나라를 찾아주시고 진정한 삶의 터전과 행복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손에 총을 잡고 분격고개, 사명산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전투들에 참가하여 수백명의 적들을 살상포로하는 혁혁한 위훈을 세운데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험난한 선군길을 헤치시며 우리 인민군대를 수령 결사옹위정신을 만장약한 사상과 신념의 강군, 우리 식의 위력한 타격수단들로 장비된 일당백의 무적강군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군력강화에 쌓아올리신 절세위인들의 위대한 업적은 또 한분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빛나게 계승되고있으며 우리 조국은 그 어떤 강적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동방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서의 위용을 만방에 떨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영웅의 이야기를 들으며 참가자들은 희세의 천출위인들을 모시고 가장 빛나는 위훈의 력사를 창조하여온 조선인민군의 전투적행로를 긍지높이 돌이켜보았으며 조국의 자유독립과 혁명의 전위물을 수호하기 위한 영예로운 성전에 모든것을 바쳐싸온 인민군용사들의 위훈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았다.

그들은 1950년대 영웅전사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따라배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받들어나가는 길에서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불굴의 기상을 힘있게 떨쳐갈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다.

제5차 보건부문체육경기대회 개막

제5차 보건부문체육경기대회가 개막되였다.

평양체육관을 비롯한 평양시와 각 도의 체육관, 경기장, 체육공원들에서 진행되는 이번 경기대회에서는 롱구, 배구, 탁구, 바줄당기기 등의 경기들이 2개 조로 나뉘여 벌어지게 된다.

개막식이 20일 평양체육관에서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태복동지와 판계부문, 보건부문의 일군들과 선수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교원, 학생들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강하국 보건상이 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5돐을 성대히 경축한 환희와 격정을 안고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을 더욱 힘있게 벌리고있는 시기에 제5차 보건부문체육경기대회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이번 경기대회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보건부문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켜 문명강국건설을 앞당겨나갈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비상한 각오와 높은 정신력, 집단의 단결력과 우리 당의 대중체육방침의 정당성을 과시하는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모든 참가자들이 경기마다에서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와 완강한 투지, 높은 체육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훌륭한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더욱 고조시키는데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선수들의 분렬행진에 이어 김만유병원과 평양산원 선수들사이의 남자배구경기와 조선태권도위원회 태권도선수단 선수들의 시범출연이 있었다.

경기대회는 5월 2일까지 진행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동포조국방문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20일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방문단성원들은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로 조국의 무궁번영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시였으며 총련의 강화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참으로 좋은 인민입니다. 우리 인민처럼 훌륭한 인민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습니다.》

신의주시 류상1동 2인민반에 가면 《꽃집》으로 불리우는 가정이 있다. 평안북도인민보안국에서 일하는 제대군관인 박금혁동무의 가정이다. 그의 가정에는 30㎡나 되는 온실에 100여상이나 되는 불멸의 꽃들이 활짝 피여나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고있다.

몇해전 2월 어느날이였다.

온 가정이 김정일화전시회장을 참관할 때였다.

붉게붉게 피여난 불멸의 꽃을 유심히 바라보던 어린 현룡이가 자기도 불멸의 꽃을 피우겠다고 하는것이였다.

《우리 현룡이가 불멸의 꽃을 피울 생각을 하는것을 보니 이제는 다 자랐구나.》

이렇게 말하며 손자를 대견하게 바라보던 할머니 김인실로인은 처녀시절에 신의주방직공장에서 직포공으로 일할 때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뵈옵던 그날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며 불멸의 꽃을 키우는데 앞장서겠다고 하면서 온 가정을 고무하였다.

그날부터 박금혁동무의 가정에서는 불멸의 꽃을 가꾸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벌리였다.

박금혁동무는 꽃모를 구해오는 일로부터 부식토를 마련하는 일, 가정에서 꽃을 가꿀수 있는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었다.

가정에 원예전문가는 없었지만 온 가정이 떨쳐나 불멸의 꽃재배에 온넋을 바쳐갔다.

정작 꽃가꾸기를 시작하고보니 애로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꽃재배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지 못한 이들에게 있어서 가정에서 꽃을 키운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가정에서 꽃을 키우는데 적합한 빛세기와 온습도를 보장하자니 어간 품이 많이 들지 않았다. 적합한 온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온 가정이 료대적으로 근무를 서면서 꽃을 가꾸었다.

박금혁동무와 그의 안해 백영희동무는 기술자들과 온실관리원들을 자주 찾아다니며 김일성화와 김정일화를 키우는데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갔다. 모르는것은 배우고 부식토와 영양액을 마련하기 위해 수십리길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고심어린 노력을 기울이였다.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태양의 꽃들이 피여나기 시작하였다.

몇해전부터는 해마다 자기들이 가꾼 지성어린 불멸의 꽃을 안고 전시회에 참가하게 되였다. 그러나 해가 바뀔수록 이들부부는 자기들의 충정의 마음이 부족한것만 같이 느껴졌다.

지난해 충정의 200일전투가 시작되였을 때였다.

박금혁동무는 절세위인들의 불같은 애국의 열정과 불멸의 업적을 새겨주는 태양의 꽃을 더 만발하게 피워갈 결심을 새롭게 다지였다.

《여보, 지금처럼 집안에서 꽃을 피울것이 아니라 온실을 건설하여 꽃가꾸기를 본때있게 하는것이 어떻소.》

백영희동무도 남편의 생각을 지지해나서며 당조직을 찾아갔다.

절절한 그리움 불멸의 꽃에 담아

신의주시 류상1동 박금혁동무의 가정

당조직에서도 이들의 발기를 적극 지지해주었다.

집뜨락에 온실을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온실건설을 시작하고보니 예상보다 더 많은 자재가 요구되였다. 박금혁동무는 수백리길을 달려 목재를 해결하였으며 철근을 모아들여 화대를 마련하였다. 이웃들과 친척들도 물심량면으로 온실건설을 도와나섰다.

이런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가정에는 30㎡나 되는 온실이 생겨나게 되였다. 박금혁동무는 김일성화와 김정일화꽃모도 100여상이나 구해다놓고 정성을 기울이였다.

한몸이 그대로 자양분이 되여서라도 불멸의 꽃을 아름답게 피우려는 이들의 마음이 어려서인가 꽃송이마다 꽃잎을 활짝 펼치기 시작하였다.

《불기를 머금으며 붉게 피여나는 꽃송이를 보느라면 자리를 뜨고싶지 않고 온종일 꽃에 붙어살다싶이 하여도 열정이 샘솟군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백영희동무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쳐있었다. 충정의 마음을 안고 불멸의 꽃을 더욱 활짝 피우기 위하여 아낌없는 정성을 기울여온 이 가정의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어찌 다 적을수 있으랴.

가정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열렬한 흠모의 정을 안고 태양의 꽃을 피워 2013년부터 도에서 진행되는 김일성화전시회와 김정일화전시회에 참가하였으며 올해 광명성절에는 상장을 수여받는 영예를 지니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5돐이 되는 뜻깊은 4월에도 온 가정의 충정의 마음에 떠받들려 태양의 꽃들이 더 아름답게 피여나 기쁨을 더해주었다.

본사기자 서승호

인도네시아대사관 성원들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참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인도네시아방문 52돐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메가와띠 수카르노 뿌뜨리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을 접견하여주신 15돐에 즈음하여 발방 히엔드라스또 주조 인도네시아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20일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위대한 어머니당의 뜨거운 온정속에 새 세대들을 위한 종합적인 과외교양기지, 인재교육의 원종장으로 더욱 훌륭하게 변모된 궁전의 여러곳을 돌아보고 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을 관람하였다.

특명전권대사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참관할 때마다 감탄을 금할수 없다, 모든것이 훌륭하고 완벽하다, 이곳에서 어린이들은 행복에 넘쳐 자기의 재능을 활짝 꽃피우고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앞서 손님들은 서해갑문, 평양326전선공장을 참관하였다.

봉골대사관 성원들과의

친선모임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5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75돐과 몽골인민혁명승리 96돐에 즈음하여 주조 몽골대사관 성원들과의 친선모임이 20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있었다.

모임에는 조철룡부위원장을 비롯한 조선몽골친선협회 성원들과 쑤렌긴 초그제델 몽골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다채로운 체육경기들을 진행한 다음 두 나라사이의 협조관계를 발전시킬데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선의 정을 두터이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태양절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천순휘 총련중앙상임위원회 고문을 단장으로 하는 태양절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축하단성원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만경대일가분들의 혁명활동을 보여주는 사적자료들과 사적물들이 전시되여있는 만경대혁명사적관을 참관하였다.

유서깊은 태양의 성지를 찾은 그들은 조국의 해방과 부강번영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생애를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방문을 마치고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시다. 그이께서는 재일동포들을 망국노의 운명에서 구원해주시고 자주독립국가의 해외공민으로 내세워주시였다.

김일성대원수님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은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천만년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겠다.

축하단은 또한 김정숙평양제사공장, 과학기술전당, 평양중등학원, 평양초등학원 등을 참관하였다.

재일동포조국방문단 도착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국장 박해철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20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방글라데슈자티야당대표단 귀국

모스타파 자말 하이더 전국집행비사회 총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방글라데슈자티야당대표단이 20일 귀국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류명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전송하였다.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대표들이 떠나갔다

로씨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대표단, 로씨아주체사상연구협회대표단, 로씨야 김정숙명칭녀성동맹대표단, 선군정치연구 네팔문학연단대표단, 네팔선군정치지지협회대표단, 네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작가, 기자연단대표단,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네팔기자협회대표단, 브라질주체사상연구쎈터대표단, 방글라데슈주체사상연구소대표단, 몽골 자주적발전을 위한 백두산협회대표단, 서유럽주체사상신봉자대표단, 체스꼬주체사상연구 및 구현소조대표단과 유럽지역주체사상연구회 리사장, 가나주체사상연구대표, 기네주체사상연구대표가 20일 비행기와 렬차로 평양을 떠나갔다.

해외연고자가족들이 떠나갔다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계청가족일행, 재중항일혁명투쟁연고자들인 김순옥, 박길송, 김철, 서순옥가족일행들, 해외연고자 손원태가족이 20일 렬차로 평양을 떠나갔다. 이에 앞서 재중항일혁명투쟁연고자 량성룡가족일행이 갔다.

【조선중앙통신】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대화원을 꽃피워준 위대한 사랑은 영원합니다

리 정 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총련의 민족교육을 발전시키시기 위하여 첫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 때로부터 어느덧 60년이라는 년륜이 새겨졌습니다.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치녀교원으로 민족교육의 교단에 섰던 저의 귀밑머리도 어느새 희여졌지만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받아안고 우리 학교에서 배워 오늘도 헌직교원으로 사업하고있으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각별한 은총으로 공화국 로력영웅, 인민교원의 영예를 지닌 총련교육일군으로서 온 동포사회가 울고 웃으며 눈물을 흘리던 그날의 감격을 영원히 잊을수 없어서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재일동포들이 살고있는 곳 어데 가나 우리 말과 글, 우리 노래를 배우는 아이들의 랑랑한 목소리가 울려나오고 일본땅에 민족교육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진 이 현실은 마를줄 모르는 사랑의 생명수, 영양소를 무어주신 절세위인들의 은덕을 떠나 생각할수 없습니다.

나라가 그처럼 어려웠던 시기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해 세계해외교포운동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동포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고 년대와 세기를 이어 베풀어주시는 절세위인들의 은혜로운 사랑과 배려는 오늘 우리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고있습니다.

애국의 피줄기를 굳건히 이어준 위대한 사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재일조선인운동발전에서 민족교육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총련결성후 동포자녀들을 위한 민주주의적민족교육사업에 큰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사업을 힘껏 도와줄것입니다. 교육원조비와 장학금도 보내주고 교과서도 보내주려고 합니다.》

언어도 다르고 생활풍습도 같지 않은 일본사람들속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에게 민족의 넋을 심어주어 그들이 민족성을 지키고 애국의 길을 꿋꿋이 이어나가게 하는데서 민족교육의 역할은 그 무엇으로써도 대신할수 없습니다.

더우기 지난날 모든 차별과 탄압으로 배움재야 배울수 없었던 재일동포들에게 있어서 교육사업은 재일동포사회의 존속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사업이였습니다.

우리 재일동포들이 해방의 기쁨을 안고 자녀들의 민족교육을 위해 곳곳에 세워놓았던 조선인자주학교는 일본반동들의 탄압으로 폐쇄되거나 일본학교법의 제약을 받는 공립학교, 공립분교, 민족학급으로 개편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특창적인 로선전환방침에 따라 주체44(1955)년 5월 25일에 총련이 결성되여 재일동포들은 민족교육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으나 몇개 안되는 조선학교들마저 교육기자재구입과 교원들의 생활보장문제로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이런 속에서 학생들의 교육비보장은 생각도 할수 없었습니다. 교원들은 허물어져가는 판자교실에서 백묵과 종이마저 부족하여 한숨을 지었고 동포들은 자녀들의 학비를 보장하기 위해 품팔이로동으로 푼전을 모았지만 너무도 보잘것없어 대다수의 동포학생들이 배움의 꿈을 포기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동포자녀들이 취학의 길을 잃었으며 일본반동들로부터 동화교육을 강요당하였습니다. 1955년만 보아도 12만명의 동포학령아동가운데서 취학생은 절반도 안되였습니다.

자녀들을 공부시키려고 그처럼 애태우던 동포들도, 동포자녀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 그들을 참된 조선사람으로 키우자고 모지름을 쓰던 교육자들도 해결방도를 몰라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재일동포들의 그 심정과 총련의 교육실태를 속속들이 헤아려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총련의 민족교육체계를 바로세우고 교육사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1955년 9월 조국해방 10돐경축 재일조선인축하단을 만나주시고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사업을 힘껏 도와줄것이며 교육원조비와 장학금도 보내주고 교과서도 보내주겠다고, 희망하는 학생들은 조국에 와서 공부하도록 하자고 온정어린 교시를 하시였습니다. 같은 해 10월 공화국을 방문한 일본국회 의원들을 만나주신 자리에서도 일본정부가 공화국이 재일동포들에게 보내는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받아들일것을 요구하신데 이어 공화국의 국가예산항목에 재일동포자녀들에 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항목을 첨부시키도록 하시였습니다.

1957년 1월 국가예산을 토의하는 중요한 회의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공장을 한두개 못 짓는 한이 있더라도 이국땅에서 고생하는 동포들에게 아이들을 공부시킬 돈을 보내주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민족적의무이다, 그리고 이것은 한두번 보내주고 그만둘 일이 아니다, 일본에 우리 동포가 있고 배워야 할 어린이가 있는 이상 계속 보내주어야 한다, 그렇기때문에 림시적인 사업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국가예산에 새로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이라는 항목을 내오고 항구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내가 늘 말하는것이지만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사업을 단순히 교육사업이라고만 보아서는 안된다, 그것은 민족을 도로 찾고 민족을 지켜나가는 중요한 민족적애국사업이다라고 가르쳐주시였습니다.

당시 조국의 형편에서는 돈 한푼한푼도 조개써야 할 때였다고 봅니다. 전후의 재더미를 �villa 갓 일어선 조국앞에는 탕장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같았으며 어느 부문에서나 요구되는것이 자금이였을것입니다. 사회주의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며 인민들의 의식주문제를 기본적으로 풀기 위한 5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고 해도, 조국땅우에 새 전쟁의 불을 지르려고 미쳐날뛰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책동에 대처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자고 해도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총련의 민족교육사업을 재일동포들의 운명과 관련한 근본문제로 보시고 국가예산항목에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반영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이렇게 되여 세계재정금융력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이라는 새로운 항목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였습니다.

1957년 4월 조국에서 처음으로 보내준 1억 2,109만 9,086㎌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받아안은 동포들은 끝없는 격정에 넘쳐 자애로운 어버이수령님의 초상화를 우러러 모두가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목청껏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때 초급부 4학년 9살 철부지였던 저도 그날의 감격과 기쁨을 60년이 된 오늘에도 생생히 기억하고있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늘 자금난으로 곤난을 겪고있던 총련의 민족교육사업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킨 생명수였으며 재일동포들로 하여금 공화국의 해외공민된 영예와 긍지를 안고 총련애국사업에 적극적으로 떨쳐나서게 하는 추동력으로 되였습니다.

절세위인들의 은정속에 강화발전된 총련의 민족교육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부어주신 한없이 위대한 사랑은 해외교포운동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져있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학부형들의 자녀교육비부담을 덜어주었고 새 학교건설, 교사증축, 각종 교구비품구입 등 교육의 물질적토대를 강화하는데 리용되였습니다.

조선대학교와 일본대학들에 다니는 빈곤한 조선인학생들과 학비난을 겪는 초, 중, 고급학교의 학생들, 과학자, 기술자들이 장학금, 취학장려금, 연구보조비를 받았습니다.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한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최고전당인 조선대학교가 번듯하게 일떠서고 곳곳에 조선학교들이 일떠서기 시작하였으며 배움의 창가마다에서 우리 글 읽는 재일동포자녀들의 랑랑한 목소리가 일본땅에 울려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민족교육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던 시기 조선대학교의 창립은 민주주의적민족교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헌실적으로 나서는 절박한 요구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체없이 조선대학교를 창립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여기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명철한 해답을 주시였으며 대학건설문제와 학생모집사업, 교과서출판과 교원대렬을 꾸리는 사업을 비롯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깊이 헤아리시고 은정깊은 조치들을 취하여주시였습니다. 특히 조선대학교의 교사건설문제를 놓고 마음써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제2차로 보내주신 교육원조비를 대학교사건설비로 쓰도록 배려하여주시였습니다.

그때로 말하면 조국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전후복구건설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어려운 시기였으며 더우기 안팎의 원쑤들이 또다시 전쟁의 불을 지르려고 날뛰던 준엄한 때였습니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지도자도 많지만 참혹한 전쟁의 피해를 가시는 그 어려운 시기에 해외교포자녀들의 교육을 걱정하여 그처럼 귀중한 외화를 보내준 지도자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시며 이역만리의 재일동포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보살펴주시는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만 베풀어주실수 있는 은정깊은 사랑이였습니다.

해외교포자녀들에 대한 이 세상 가장 숭고한 사랑의 력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에 의하여 변함없이 이어졌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선대학교 창립 25돐을 맞이하던 1981년 1월 하순 어느날 창립기념행사준비정형을 알아보시다가 조선대학교에 력사박물관을 하나 크게 꾸려주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며 거기에 원시시대와 고조선, 고구려, 발해시기를 비롯하여 력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의 유물들과 사료들을 전시하면 우리 나라 력사를 보여주는 박물관으로서 손색이 없을것이라고 교시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배려에 의하여 조선대학교 조선력사박물관이 개관되였을 때 재일동포들은 물론 남조선인민들과 일본인민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인학교와 교육계는 물론 정계에서까지 떠들썩하였고 일본의 신문들이 앞을 다투어 대서특필하였습니다.

조선대학교 조선력사박물관에 전시된 유물들에 탄복한 외국의 한 력사학자가 온종일 자리를 뜨지 않아 박물관의 한 일군이 끼니를 먼졌다는 일화 《촌쌀담》까지 생겨났으며 남조선의 한 신문사에서는 《조선대학교 조선력사박물관의 전시품들을 통째로 가져다 고대문화전시회를 열고 싶다.》는 요청을 거듭 제기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대학교에 세워주신 자연박물관도 규모와 내용의 완벽성에 있어서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교육박물관입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족교육사업에서 교과서편찬, 출판사업에 필요한 방대한 재정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해 정세가 아무리 긴장하고 나라의 사정이 어려워도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거듭 보내주시여 민족교육도서출판기관인 학우서방이 자기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우리 조국에는 총련 조선대학교 교원, 학생들을 위한 강습소와 실습학교들, 통신수강제도와 통신박사원제도를 내오도록 하여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조국을 방문한 우리 교육일군들과 동포학생들을 만나주시고 따뜻한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시였으며 수많은 교편물들과 교재, 교구비품, 민족악기들을 보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이 재일조선공민들과 그 자녀들에게 제때에 정확히 가닿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주시였습니다. 해마다 보내는 거액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에는 총련동포자녀들을 생각하시는 수령님의 자애로운 사랑이 담겨져있다고, 총련에 교육원조비를 보내는것은 총련동포자녀들에 대한 수령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내는것이라고 하시면서 교육원조비를 정성껏 마련하여 보내주어야 한다고 뜨겁게 이르시였습니다.

1990년 12월 공화국 정무원(당시)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 긴장한 외화사정으로 총련에 보내주기로 한 교육원조비의 나머지돈을 이번에는 보내기 어렵다고 보고드린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빚어지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시련도 총련과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그 옹심의 세계를 절대로 흔들어놓을수 없었습니다. 총련에 보내주기로 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금덩이를 팔아서라도 꼭 해를 넘기지 말고 보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즉시 해당 부문 일군들을 부르시여 어떻게 하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줄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교육원조비와 장학금문제를 경코 나라의 사정에 겹고 에누리할수 없으시였던것입니다.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에 깃든 사랑의 이야기는 5천년래 처음으로 하늘이 무너져내리는것 같은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피눈물의 그날에도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조국의 형편이 매우 어려웠다는것을 저희들도 알고있었습니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이 절정에 달하고 련이어 들이닥치는 자연재해로 하여 집쌓이는 모든 난관과 시련을 사생결단의 각오와 의지로 헤쳐나가야 하였습니다. 때문에 해당 부문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께 총련의 교육원조비와 관련된 문제를 차마 말씀드릴수가 없어 망설이기만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재일동포자녀들에게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제도와 전통이므로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기간을 변경시키거나 그 량을 줄이지 말고 수령님께서 계실 때와 똑같이 보내주어야 한다고 간곡하게 이르시였습니다.

좋은 날에나 시련의 날에나 변함없이 총련의 민족교육을 생각하시며 새 세대 동포자녀들을 위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넘치는 교시를 받아안으며 일군들은 끝끝내 솟구치는 격정의 눈물을 쏟고야말았습니다.

대국상의 나날 뜻밖에 어버이수령님의 사랑그대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받아안은 우리 총련일군들은 《누구보다 상실의 아픔이 크신 장군님께서 오히려 우리 재일동포들에게 이처럼 많은 돈을 보내주시다니 세상에 이런 꿈같은 일도 다 있습니까!》라고 자기들의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습니다.

년년이 이어지는 그 은정에 감격을 금치 못하며 한 재일동포시인은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또다시 보내주셨구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준엄한 북구건설의 그날로부터
고난의 행군길을 다그치는 오늘까지

기나긴 40년세월
사랑의 생명수
이역땅에 우리 가슴에
한가득 차고넘치여라

아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생각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마음
어쩌면 이렇게도
어버이수령님과 꼭 같으십니까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에 깃든 은혜로운 사랑의 력사는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더욱 빛을 뿌리고있습니다.

재일동포들은 비록 조국과 멀리 떨어져있지만 두터운 정을 안고사는 하나의 혈육이라고, 우리는 주체의 애국유산인 총련을 귀중히 여기고 백방으로 보호할것이며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존엄높은 삶과 밝은 미래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할것이라고 온 세상에 선언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뜻을 정히 받드시여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해마다 변함없이 보내주고계십니다.

얼마전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 105돐을 맞으며 총련에 보내주신 2억 1,800만㎌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받아안았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총련에 보내주시는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애국유산인 총련을 굳건히 지켜내고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인 민족교육을 더욱 강화발전시키려는 높으신 의도가 담겨져있습니다.

세상에는 모국을 떠나 해외에 사는 교포들이 적지 않고 그들의 조직도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총련과 같이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따뜻한 사랑과 은정속에 강화발전하는 해외교포조직,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의 보살핌속에 조선민족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행복한 해외공민들은 없습니다.

대양의 빛발아래 창창한 총련의 민족교육

절세위인들의 위대한 손길아래 오늘 일본땅 곳곳에는 유치원으로부터 초, 중, 고급학교와 대학교에 이르는 민족교육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져 동포학생들을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니고 높은 실력을 소유한 인재로 키워나가고있습니다.

총련중앙으로부터 각 지방본부와 지부에 이르기까지 각급 단위들에 있는 교육전문부서들은 교육과정안과 교과서편찬, 교원양성과 학교건설 등 교육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보장하면서 동포들의 창의창발성을 적극 조직동원하고있습니다.

60여명의 학생과 10명의 교원으로 첫 출발을 뗀 총련 조선대학교만 보더라도 오늘은 수많은 학생들과 교직원들 그리고 8개의 4년제학부와 2년제단기학부, 3년제 교육학과, 5개의 연구기관을 가진 권위있는 종합대학으로 발전되였습니다.

수십년전에 교사라고는 판자로 지은 교실뿐이였던 조선대학교는 오늘 3만평의 부지에 제1, 제2, 제3연구당과 조선력사박물관, 자연박물관, 도서관, 강당, 체육관, 사무당, 기숙사를 그쯘히 갖춘 세계적수준의 대학으로 면모를 일신하였습니다.

조선대학교는 또한 일본을 비롯한 세계 50여개 나라의 220여개의 대학들과 학술교류를 진행하고있습니다.

총련애국위업의 전렬에는 조선대학교 졸업생들이 서있습니다.

조선대학교가 키워낸 인재들이 총련의 각급 조직들과 교육, 언론, 문학예술, 경제와 과학기술의 여러 분야에서 기둥이 되고 대들보가 되여 재일본조선인운동을 믿음직하게 떠메고나가고있습니다.

하기에 세상사람들은 《조선대학교는 곧 총련의 얼굴》, 《총련을 보려거든 조선대학교를 보라.》고 말하고있습니다.

언제인가 조선대학교를 참관한 남조선의 한 인사는 《이렇게 훌륭한 대학을 짓고 운영하고있으니 감동의 눈물을 금할수 없고 민족적긍지를 느낀다. 조선대학교는 세계에 크게 자랑할만 한 대학이다.》고 말하였습니다.

정연하게 꾸려져 온을 내고있는 민족학급, 오후야간학교, 토요이동교실, 하기학교를 비롯한 준정규교육체계도 민족교육사업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되였습니다.

총련의 민족교육체계에서 공부한 10여만명의 졸업생들이 모두 총련일군, 문회일성자, 애국적상공인 등 동포사회의 당당한 주인공들로 자라났습니다.

일본반동들의 악착스러운 탄압책동속에서도 총련을 지키고 애국의 한길을 억세게 걸어올수 있은것은 은혜로운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생명수로 하여 자라난 애국자들이 있었기때문입니다.

지금도 재일동포학생들이 민족교육의 화원에서 우리 말과 글, 우리의 력사와 문화를 배우면서 총련의 훌륭한 역군으로 꿋꿋이 자라나고있습니다.

이역땅에 불아치는 가혹한 시련과 도전의 광풍은 총련의 애국항로를 끈질기게 막아나서고있습니다.

하나 뿌리깊은 나무가 폭풍에도 끄떡없듯이 탄압의 광풍이 아무리 모질고 세차도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키워주시고 길어주시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애국의 신념은 굳건합니다.

오늘 우리 재일동포들은 어버이장군님의 마음을 담아 해마다 세해축전과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확확 보내주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재일동포들은 어버니조국과 한피줄을 잇고사는 친형제, 한집안식솔이라고 다정히 불러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충정다할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고있습니다.

총련 각급 기관 일군들과 저를 포함한 우리 교육일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위하여 베풀어주신 뜨거운 정과 혈연의 력사를 변함없이 이어나가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의 대번영기를 펼쳐가는 조국인민들과 심장의 박동을 맞추어 총련의 애국충정의 본때를 빛내여나갈것입니다.

(필자는 총련 니시도쿄조선제2초중급학교 교장임)

박근혜의 악페를 완전히 청산하자

대전에서 17차 시국집회 진행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의 박근혜퇴진 대전운동본부와 《세월》호참사대전대책회의가 15일 《세월》호참사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 박근혜역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공범자구속, 악페청산을 요구하여 대전에서 17차 시국집회를 가지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박근혜가 내려가고 《세월》호가 올라왔어도 참사의 증거들은 아직 세상밖으로 나오지 못하고있다고 하면서 박근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였다.

그들은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은폐하는데 앞장서온 우병우를 구속할것을 주장하고 그를 구속하지 않은 피뢰검찰을 규탄하였다. 《국회》가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할수 있는 옳바른 특별법을 제정하며 다시는 당국의 잘못으로 아이들이 희생당하지 않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력사의 주인, 사회의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지 않으면 소수의 리익을 위해 다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독재 《정권》이 다른 이름으로 부활하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새 《정부》에 대한 결정권은 촛불혁명의 주역인 국민에게 있다고 주장하였다.

박근혜의 반민주, 반로동, 반민생, 반통일정책들은 여전히 살아서 국민을 통락하고 기만하고있다고 그들은 단죄하였다.

그들은 박근혜를 퇴진, 구속시킨 1차 촛불혁명의 승리를 쟁취하였다고 하면서 이제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권》, 박근혜악페세력을 완전히 청산하는 《정권》, 일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며 민주와 평등, 평화와 자주통일정책을 가진 《정권》을 수립하는것으로 2차 촛불혁명의 승리를 안아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시내에서 시위행진을 벌렸다.

한편 박근혜퇴진 대전운동본부는 박근혜의 악페청산과 6대 긴급과제, 개혁립법 등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세 조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싸드》배치반대와 평화실현을 위한 선언문 발표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14일 남조선의 《싸드》배치반대 청년학생긴급행동이 서울에 있는 미국대사관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싸드》배치반대와 평화실현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선언문은 청년들이 평화와 통일보다 대결과 전쟁의 먹구름속에, 민족공멸의 위기속에 있다고 하면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 없고 동맹이라는 간판아래 언제 어디서든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미국의 침략적야망을 짓뭉개버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절차도 무시하고 명분도 없는 《싸드》를 강제로 배치하겠다는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선언문은 규탄하였다.

지난 9년간 통일된 조선반도의 미래에 대한 청년들의 꿈이 무참히 짓밟힌데 대해 지적하고 선언문은 리명박근혜의 《대북정책》은 전쟁위기와 무기증강만 부추기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하였다.

선언문은 《대통령》선거후 보들에게 군사적대결을 종식시키기 위한 대화를 제안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해 나설것과 박근혜의 실패한 《대북정책》, 《싸드》배치를 철회하고 평화와 통일의 전망을 제시할것을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대참사가 고발하는 살인마들의 죄악

얼마전 남조선에서 《세월》호참사가 일어난지 3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대규모적인 초불집회가 또다시 벌어졌다. 참가자들은 《세월》호참사당시 건지지 못한 사망자들을 찾아내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박근혜역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징벌을 요구하여 거세를 올리였다.

남조선인민들이 《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지난 3년간 살인마들에 대한 증오와 격분을 금치 못하며 반 《정부》투쟁을 힘차게 벌려온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면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때로부터 지난 3년간 이어져온 박근혜패당의 반인륜적책동을 다시금 돌이켜보기로 하자.

알려진바와 같이 2014년 4월 16일 제주도로 수학려행을 가던 수백명의 어린 학생들을 태운 《세월》호가 전라남도 진도앞바다에서 비극적으로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세월》호인양과정에 다시금 밝혀진 사실이지만 선체가 기울어지게 된 중요한 원인은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적재량에 있었다. 그 화물로 말하면 제주해군기지건설에 쓰일 자재였다. 당시 박근혜패당은 제주도로 가는 배들에 제주해군기지건설용자재를 무조건 실어나르도록 강박하였다. 보다싶이 《세월》호침몰은 박근혜패당의 반역정책, 북침전쟁책동과 떼여놓고 볼수 없다.

사실상 《세월》호참사는 인민들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는 피뢰보수패당의 반인민적악정이 빚어낸 특대형인재이다.

당시 박근혜역도가 《세월》호가 침몰하고있는데도 구조대책을 세우기는 고사하고 무려 7시간동안이나 청와대골방에 들어박혀 자기의 상판을 다스리는데 몰두했다는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피뢰역도가 이 뜰이니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이라는자는 《안보실은 재난구조사령탑이 아니》라고 나자빠졌고 해양경찰과 해양수산부것들은 아이들을 구조한것이 아니라 카라앉는 《세월》호의 주변을 빙빙 돌며 시간만 보내다가 제 목숨만 건지겠다고 뛰쳐나온 선장과 선원들만 싣고오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피뢰패당은 이어 사건의 책임을 선장과 몇몇 선원들의 탓으로 돌아대면서 민심기만놀음에 매달렸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남조선의 한 인터네트신문은 《박근혜가 할수 있는 일이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일이다. 독재자의 딸은 결코 책임지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라고 보도하였었다.

《세월》호참사에 분노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이 고조되는 속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내올데 대한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피뢰패당은 그에 응해나서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대참사를 빚어낸 저들의 친인공노할 죄악을 가리우고 심화되는 통치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실로 비렬하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박근혜패당은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언론보도를 철저히 장악통제하면서 여론을 기만하고 분노한 민심을 눅잦히려 하였으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였던 우병우는 《세월》호참사 수사조에 압력을 가하여 사건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수 없게 하였다. 특히 피뢰패당은 《세월》호참사수사에 나선 사람들에 대한 파거사뭉개와 인신모욕 등 온갖 치졸한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그들의 활동을 극력 가로막았다.

한편 피뢰들은 《박사모》, 《어버이련합》, 《엄마부대》를 비롯한 국우보수단체들을 내세워 《세월》호참사희생자유가족들을 《시체장사군》으로 모독하는 집회를 벌리도록 배후조종하였는가 하면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을 경찰을 내몰아 기습하는 깡패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더우기 남조선 각계의 격분을 자아낸것은 박근혜패당이 《세월》호선체의 인양에 필요한 자금보장을 차단하다 못해 특별조사위원회의 법적존재기간이 지났다는 구실을 내대며 이 기구의 활동을 강제로 중지시킨것이다. 이로 하여 《세월》호의 인양이 무한정 지체되였으며 사건의 진상규명도 이루어질수 없었다.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때로부터 흘러온 지난 3년간은 극악한 살인마인 박근혜역도와 그 졸개들이 저들의 엄청난 범죄행위를 가리우고 국도의 통치위기에서 헤어나기 위해 죄악에 죄악을 덧쌓은 나날이였다.

《세월》호참사 3년을 계기로 또다시 벌어진 남조선인민들의 대규모적인 초불투쟁은 사건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고 피맺힌 원한을 풀고야말려는 그들의 강렬한 의지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면서 특등범죄자 박근혜역도가 사건과 관련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결같이 주장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역도는 아직도 자기의 죄악을 모두 부인하면서 인민들을 기만우롱하고있다. 피뢰보수패거리들역시 《〈세월〉호참사를 정치적으로 리용하지 말아야 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궁지에서 헤여나보려고 발악하고있다. 얼마전 피뢰패당이 희생자유가족들의 동의도 없이 《세월》호인양을 구실로 선체의 일부 부분들을 제멋대로 파손시킨것은 사건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한 또 하나의 범죄행위이다. 피뢰정보원이 박근혜역도가 구속되기 전에 청해진해운회사담당자와 전화련계를 가지고 콤퓨터로 《세월》호화물적재량을 위조하였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아온 우병우에 대한 구속령장이 기각된것도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피뢰보수패당이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어떻게 하나 가리우려고 각방으로 책동하고있는것은 찌여가는 잔명을 무지하기 위한 최후발악이다.

피뢰역적패당의 파렴치한 망동을 통해 남조선인민들은 극악한 살인마들을 단호히 징벌하지 않고서는 제2, 제3의 《세월》호참사가 일어나는것을 막을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새겨안고있다.

김 철 남

온 민족이 떨쳐나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의 천인공노할 생화학전쟁도발흉계를 단호히 짓부셔버리자

미군범죄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북측본부 대변인담화

최근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이 북침생화학전쟁계획인 《쥬피터계획》을 강행추진하기 위해 판련장비들을 무산항에 끌어들인 흉악한 범죄가 드러나 온 민족의 치솟는 증오와 분노를 폭발시키고있다.

남조선사회 각계에서 격렬한 항의규탄의 목소리가 터져나오자 급해맞은 미국은 변변스럽게도 단저굳을 반입하거나 판련실험을 하려는것은 아니며 탐지가 주요목적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있다.

그러나 그 어떤 오그랑수로도 극악무도한 범죄적흉계를 가리울수 없다.

미제침략군이 추진하고있는 이른바 《쥬피터계획》은 앞으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전쟁을 도발하는 경우 생화학무기들을 대량 투하하는것을 골자로 하고있는 극히 위험천만한 살인전쟁각본이다.

이미 미국은 지난해 11월까지 부산항에 종합적인 생화학무기실험실과 판련장비들을 설치하기로 괴뢰들과 합의하였으나 부산시민들을 비롯한 남조선 각계층의 강력한 항거에 부딪쳐 미루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다가 최근 남조선내부의 관심이 온통 괴뢰대통령선거에 쏠려있는 틈을 타서 괴뢰정권이 바뀌기 전에 살인장비반입을 서둘러 결속하려고 도적질한 물건을 끌어들이듯이 허덕버치고있다.

미국의 생화학살인장비반입책동은 조선반도전역을 하나의 거대한 생화학전시험장으로 만들고 우리 민족에게 무서운 재난을 들씌우려는 치떨리는 반인륜적범죄행위이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미국의 범죄적인 생화학전장비반입책동이 우리에 대한 《선제타격》을 떠들어대며 각종 핵타격수단들과 특수전병력을 총동원하여 북침전쟁소동에 극도로 광분하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고있는것이다.

미군범죄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북측본부는 이 땅에 생화학살인장비까지 마구 끌어들여 우리 민족에게 또다시 전대미문의 대참화를 들씌우려는 악마의 제국 미국과 그에 항변은커녕 미제의 전쟁사환군이 되여 오히려 극구 동조해나서고있는 괴뢰역적패당의 극악한 사대매국책동을 온 민족의 이름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력사적으로 미제가 조선인민에게 감행한 치떨리는 생화학전살륙만행과 그 참혹한 후과는 오늘도 우리 인민과 온 겨레를 분노에 치를 떨게 하고있다.

세계제패전략실현에서 세균전에 큰 기대를 건 미제는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기 바쁘게 세균무기연구에 착수하였으며 1946년과 1949년에 벌써 여러차례에 걸쳐 남조선인민들을 대상으로 콜레라, 일본뇌염 등을 전파시키는 실험을 감행하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페스트, 콜레라, 장티브스와 같은 세균무기들과 최루성 및 질식성독가스탄을 비롯한 화학무기를 동원하여 조선인민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미제의 천인공노할 야수적만행은 전세계를 경악케 하였다.

전후에도 미국은 각종 생화학무기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 세균연구소, 세균전특수부대까지 운영하면서 남조선전역을 생화학무기시험장, 인체실험장으로 전락시키였으며 북침생화학전쟁도발을 위한 실전훈련을 그칠 사이없이 벌려놓았다.

지어는 남조선에서 태어난지 불과 몇개월밖에 안되는 어린이, 고아원의 백수십명의 어린이들까지 일본 오끼나와에 있는 미군기지에 끌어가 야만적인 생체실험을 한 인두겁을 쓴 야수들이 바로 미제살인귀들이다.

인간살륙을 도락으로 삼는 미제의 귀축같은 만행에 의하여 남조선에서는 1976년 한해에만 하여도 류행성출혈열을 비롯한 악성전염병으로 2만여명이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참사가 빚어졌다.

남조선강점 미군기지에 살아있는 탄저균을 끌어들이고 지카비루스실험을 비밀리에 추진한 사실 등 최근년간에 드러난 미제의 생화학전범죄행위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미제야말로 조선민족의 천년숙적, 불구대천의 원쑤이며 반인륜적범죄의 원흉이다.

인류를 수백번 멸살시키고도 남을 방대한 량의 세균무기, 화학무기를 비축해놓고도 모자라 미국은 새로운 생화학무기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그것을 제2의 조선전쟁에 적용할 흉계를 꾸미고있다.

미국은 남조선에 생화학전쟁장비들을 또다시 끌어들임으로써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우리 민족을 생화학무기로 멸살시키는것도 서슴지 않을 범죄적기도를 다시금 여지없이 드러냈다.

최근 미국이 우리를 터무니없이 걸고들며 그 무슨 《생화학무기위협》설을 떠들어대는것도 결국은 북침생화학전쟁도발의 명분을 마련하려는데 그 흉악한 속심이 있다.

그러나 미국은 오산하고있다.

우리는 미국의 북침생화학전쟁도발책동을 결코 앉아서 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며 이 행성에서 악의 제국을 송두리채 불마당질해버리는것으로 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할것이다.

미국은 무모한 군사적망동이 가장 비참한 종국적파멸로 이어지게 될것이라는 우리의 경고를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

괴뢰역적패당도 미국의 천인공노할 반인륜적인 생화학전쟁책동을 묵인하며 그 하수인이 되여 징검돌을 놓아준 사대매국행위가 초래하게 될 파국적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인류정화의 과피자, 가장 야만적인 침략의 원흉인 미국과 상전의 생화학전쟁도발흉계에 추종하는 괴뢰역적패당의 무분별한 북침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거족적두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주체106(2017)년 4월 20일
평 양

북유럽 진보정당 및 친선단체들의 련합경축모임 진행

태양절에 즈음하여 북유럽 진보정당 및 친선단체들의 련합경축모임이 8일 스웨리예 스톡홀름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장소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영상미술작품이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사진문헌들이 모임장소에 모셔져있었다.

또한 백두산천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이룩한 성과들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모임에는 단마르크, 스웨리예, 핀란드 등 북유럽나라 진보정당,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 인사들, 주체사상연구조직 성원들과 스웨리예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함께 계시는 영상미술작품에 꽃다발과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모임에서는 단마르크의 공산당 지도부성원 헨닝 야콥센,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 위원장 크리스테르 룬드그렌, 핀란드조선협회 위원장 빼까 꼬뜨까싸리를 비롯한 여러 인사들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시고 조선의 해방을 안아오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조선의 당과 국가, 군대의 창건자, 한세대에 미일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지애로운 어버이이시다, 그이의 고귀한 생애와 업적은 인류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될것이다고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구상과 념원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고 그들은 찬양하였다.

그들은 우리 인민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반제자주, 사회주의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면서 경제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눈부신 성과들을 거두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이어 성명이 랑독되였다.

성명은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을 격찬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김일성주석의 위업을 계승완성하고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안아오기 위한 조선인민의 영웅적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조선인민은 사회주의제도를 말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과 갖은 음모를 짓부시면서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믿음직하게 보장하고있다.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축원의 인사를 드린다.

정의와 사회주의를 수호하며 민족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전람회 로씨야에서 개막

태양절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전람회가 5일 로씨야 뽀쏘몰스크-나-아무레시 미술박물관에서 개막되였다.

전람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백두산천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눈부신 발전모습을 보여주는 출판물들, 우리 인민의 슬기와 재능을 보여주는 수공예품들 등이 전시되여있었다.

전람회개막식에는 로씨야 뽀쏘몰스크-나-아무레시 시장을 비롯한 시행정부 인사들, 미술박물관 직원들, 각계층 시민들, 출판보도관계자들과 하바롭스크주재 우리 나라 부총령사와 령사들이 참가하였다.

개막식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뽀쏘몰스크-나-아무레시 시장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각하의 탄생 105돐에 즈음하여 전람회를 진행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일성주석각하는 온 세계가 공인하는 명성높은 정치가이시다.

2002년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뽀쏘몰스크-나-아무레시방문은 전통적인 로조친선관계발전을 힘있게 추동한 력사적인 계기로 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 우리 시에 남기신 자욱은 길이 전해질것이다.

전람회는 22일까지 진행된다.

【조선중앙통신】

조선 미국의 도발에 초강경대응할것이라고 강조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성명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우리 군대와 인민의 초강경대응의지를 천명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성명을 14일과 15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하여 트럼프행정부의 전쟁광증이 위험한 단계로 치닫고있는데 대해 폭로하고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미국의 적대시정책에 따른 날강도적인 정치, 경제, 군사적도발책동을 초강경대응으로 짓부셔버릴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국의 트럼프행정부가 선택한 대조선정책은 첫째로는 그 누구와 함께 고강도제재와 압박을 가한다는것이며 둘째로는 남조선에 전술핵무기를 상시적으로 전개한다는것이며 셋째로는 조선의 수뇌부를 노린 《참수작전》과 《선제타격》을 내용으로 한 독자적인 군사행동에 나서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대변인은 미국이 걸어오는 도발의 종류와 수위에 맞는 조선식의 적중한 초강경대응이 그 즉시에 따라서게 될것이다, 강권과 침략의 희생물이 되여 비참한 운명을 겪고있는 이라크나 리비아처럼 조선을 대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을것이다, 미국은 제정신을 가지고 문제해결의 옳은 선택을 하여야 할것이다고 강조하였다.

리아 노보스찌통신, 신문들인 《이즈베스찌야》, 《로씨스까야 가제따》, 《5통로》TV방송을 비롯한 로씨야의 30여개 주요언론들, 중국중앙TV방송, 이란의 일나통신, 인디아의 신문 《타임스 오브 인디아》, NDTV방송, 일본의 지지통신,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도 《북조선 미국의 도발책동을 초강경대응으로 짓부셔버릴것이라고 경고》 등의 제목으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성명을 전문 또는 요지로 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단평 불치병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자국내에 만연되는 테로라는 난치병을 근절하겠다고 이주민입국금지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그를 조롱이나 하듯 얼마전에 테로경보신호가 갑자기 나 백악관이 무려 45분동안이나 폐쇄되는 소동이 발생하였다. 한 남성이 백악관근처에 있는 경찰에게 다가가 자기 손에 들려진 꾸레미속에 폭발물이 들어있다고 말한것이 사건의 발단으로 되였다. 와틀 놀란 경찰은 그 남성을 억류해놓고 꾸레미를 조사한다, 도로를 봉쇄한다 하며 분주랑을 피웠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긴급대피하는 등 일대 혼란이 빚어졌다.

이로 하여 미국내에서 테로공포증이 급격히 증대되고있다.

21세기에 들어와 미국은 《반테로전》을 개시한 때부터 국내에서 우심하게 일어나는 테로행위들을 막아보겠다고 별의별 조치들을 다 취해보았다. 테로방지법이라는것을 만들어내고 개악도 해보았으며 자국민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도청행위도 일삼았다. 하지만 어느것 하나 테로방지에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지난해에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올랜도시총격사건을 비롯하여 미국내에서 일어나는 크고작은 테로행위들로 미국인들은 하루하루를 잠찍한 악몽속에 시달리고있다.

미국이 근원치료를 하지 않는 한 그 어떤 조치들을 내놓아도 테로를 절대로 방지할수 없다. 테로발생의 근원은 침략과 전쟁으로 일관된 《반테로전》에 있다.

하지만 침략과 전쟁이 없이는 살수 없는것이 미국이다. 그러니 테로는 미국에 있어서 불치병이다.

안 철 권

전백배로 결산해야 할 일본의 과거죄악

일본이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죄악은 아무리 세월이 흐른대도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영원히 아물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다.

1592년 4월 13일 일본은 명나라로 가는 길을 열라는 황당한 구실밑에 대병력으로 우리 나라에 대한 무력침공을 개시하였다. 임진왜란으로 불리우는 이 침략전쟁에서 일본은 극악무도한 살륙과 파괴, 랍치 등 온갖 전쟁범죄를 다 저질렀다.

임진왜란은 조선뿐아니라 나아가서 아시아나라들에 대한 일본의 침략전쟁의 시발로 되였다.

오래전부터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야망을 품고있던 일본사무라이들은 조선땅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사람잡이와 재물략탈에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전조선땅을 라고 앉기 위해서는 조선민족을 멸족시켜야 한다는것이 사무라이들의 구호였다.

임진왜란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우리 인민에 대한 대살륙전이였다.

살인악마들은 우리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살륙만행을 저질렀다.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부산성을 공격한 왜적들은 남녀로소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대로 죽이였다. 전쟁기간 가장 큰 규모의 학살만행은 진주성에서 감행되였다. 일본침략자들은 간신히 죽음을 면한 사람들을 붙잡아 창고에 가두어넣고 불태워죽였다. 지어 살인귀들은 조선군대의 끊임없는 공격과 봉쇄로 하여 식량이 떨어지자 조선사람의 살점까지 뜯어먹는 치떨리는 야만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사무라이들이 조선사람들에 대한 살륙만행에 얼마나 미쳐돌아갔는가 하는것은 일본의 교또에 있는 코무덤을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당시 일본침략군은 무고한 조선인민들을 대량살륙하였을뿐아니라 도요도미 히데요시의 명령에 따라 수많은 조선사람들의 귀와 코까지 베여 일본으로 날라갔다. 이렇게 날라간 조선사람들의 귀와 코를 묻은 무덤이 아직도 일본 교또에 뻐젓이 있다. 베여온 조선사람들의 코와 귀수자에 따라 《군공》을 평가한 침략군우두머리들, 무고한 백성들을 마구 죽이는것을 출세의 길로, 도락으로 여기고 조선사람의 귀와 코를 베기 위한 경쟁까지 벌린 군졸들, 이런 야수들에 의해 짐승도 낯을 붉힐 범죄행위가 임진왜란 전기간 전국도처에서 감행되였다.

심지어 왜적들은 죽은 사람들의 귀를 베여내다 못해 논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에게 달려들어 코와 귀를 잘라냈으며 늙은이들과 아낙네들, 엄마의 등에 업힌 젖먹이어린이의 작고 여린 귀까지도 무지막지하게 잘라냈다. 사람의 가죽을 뒤집어쓴 살인악마, 흡혈귀들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수 없는 잔악한짓이였다.

기록에 남은 자료들만 보아도 일본침략군은 2차침공때에 11만 3 300여명을 살해하였다. 여기에 1차침공때 적들이 부산, 동래, 한성, 평양, 진주 등지에서 대량학살한 사람들까지 합치면 그 수는 무려 수십만명에 달한다.

임진조국전쟁은 우리 인민의 결사적인 항전에 의하여 1598년 11월 일본의 대참패로 끝났지만 그 후과는 매우 참혹하였다.

실로 임진조국전쟁때 일본침략군이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만행은 천추에 용납 못할 특대형국가범죄이다.

도요도미 히데요시의 과렴치한 명토평창야욕은 사무라이후예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졌다.

1905년에 날강도적인 《을사5조약》을 날조하고 우리 나라의 국권을 강탈한 이또 히로부미가 《도요도미공의 소원을 이루었다.》고 궤치떠 식민지파쑈통치를 실시하였고 그 뒤를 이어 특급전범자인 도죠는 태평양전쟁을 도발하였다.

력대로 일본은 우리 인민에게 씻을수 없는 반인륜죄악만을 저지른 천년숙적이다.

임진왜란의 주범이고 반인륜범죄의 왕초인 도요도미 히데요시가 《국민영웅》으로 떠받들리고있다. 일본에서는 《히데요시》라는 제목의 력사편집물이 텔레비죤으로 특별방영되고 그의 《명혼》을 위로한다는 료또 호고무진자참배, 그와 련관된 지역의 개발과 관광 등이 벌어지고있다. 이것이 조선침략을 찬미하고 합리화하여 과거청산의 책임에서 벗어나며 국민들속에 야마도민족의 《우월감》과 민족배타주의, 해외침략사상을 고취하기 위한것이라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광기어린 군국주의선전에 물젖은 사무라이후예들은 공개적으로 재침의 칼을 벼리고있다. 최근년간 일본반동들은 우리의 《미싸일기지에 대한 선제공격》을 로골적으로 부르짖고있다. 조선반도정세가 긴장될 때마다 일본에서 미일합동군사연습이 맹렬히 벌어지고있다. 이것은 미제가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는 경우 일본이 위험한 침략세력으로서 가담하려 한다는것을 실증해준다.

반성은커녕 죄악의 력사를 되풀이하려는 일본반동들의 과렴치한 행위는 우리 민족의 분노를 더욱 불러일으키고있다.

일본의 과거죄악을 끝까지 계산하여 쌓이고쌓인 민족의 한을 기어이 풀려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의 의지이다.

우리 인민은 일본이 저지른 과거죄악의 대가를 백배, 천배로 받아낼것이다.

리 현 도

수리아에 대한 미국의 미싸일공격을 규탄

미국이 제손으로 제눈을 찌르고있다고 비난

로씨야대통령 울라지미르 뿌찐이 12일 미르TV방송과의 회견에서 수리아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 국제법에 위반된다고 언명하였다.

그는 미국의 미싸일공격이 국제법위반으로 되는것은 수리아군의 화학무기사용을 확증하는 증거가 없이 단행되였기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완전히 남조선 구실을 리용하여 중동지역에 침략무력을 들이밀었으며 바로 그때부터 각종 테로단체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이슬람교국가》를 비롯한 테로조직들이 출현하였다고 폭로하였다. 그는 모두가 이것을 알고있으며 기억하고있다고 강조하고 미국은 또다시 그때와 같이 제손으로 제눈을 찌르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미국이 전략적실책을 범하였다고 주장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의 고위군사고문이 최근 수리아에 대한 미국의 미싸일공격은 미행정부에 있어서 전략적실책으로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미국집권자가 수리아공격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하면서 그것은 테로분자들에 대한 지원으로 되며 실패를 면치 못할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군사적공격을 통하여 새 미국대통령이 테로분자들의 지원자라는것이 드러났다.》고 강조하고 그는 그의 정책이 《이슬람교국가》라는 테로조직을 산생시키고 지원하던 전 미국대통령 오바마의 정책과 흡사하다고 강조하였다.

레바논애국력량조직 성명 발표

레바논애국력량조직인 히즈볼라호가 최근 성명을 발표하여 수리아의 주권에 대한 미국의 극악한 침략행위를 규탄하였다.

성명은 이번 공격사건을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유태복고주의적인 야망에 부채질하려는 미행정부의 집요한 책동의 일환으로 락인하였다.

성명은 이와 같은 피많은 침략행위들은 미국의 지원을 받고있는 테로분자들과의 싸움에서 련속 전과를 거두고있는 영웅적인 수리아군대의 기세에 겁고 영향을 줄수 없을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이 이번에 단행한 어리석은 행동이 지역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국제정세를 복잡하게 만들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요르단인들 반미통성투쟁 전개

요르단의 암만에서 8일 수리아에 대한 미국의 침략행위를 규탄하는 통성투쟁이 벌어졌다.

많은 각계층 군중은 반미구호들을 웨치면서 수리아에 미싸일공격을 가한 미국의 불법무도한 침략행위를 준렬히 규탄하고 수리아정부와 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그들은 또한 미국의 간섭책동을 견결히 배격하면서 수리아문제가 정치적방법으로 해결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뛰르끼예에서 반미집회

뛰르끼예의 앙까라와 이스딴불에서 8일 수리아에 대한 미국의 미싸일공격행위를 규탄하는 집회들이 벌어졌다.

7일 미국이 수리아에 수십기의 미싸일을 퍼부어 인명피해를 초래한데 항의하여 미국대사관과 영사관앞에서 진행된 집회들에는 많은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양키들은 제 소굴로 돌아가라》, 《미국살인마들은 중동에서 물러가라》 등의 구호들을 웨치면서 주권국가에 대한 미국의 불법무도한 침략행위를 준렬히 단죄하였다.

2016년 미국의 인권기록 (4)

중국국무원 보도판공실이 발표

5. 응당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있는 녀성과 어린이, 로인들의 권리

2016년에 미국에서 녀성의 수입은 남성보다 대폭 낮았고 성희롱과 성범죄가 잦았으며 어린이빈궁률이 앞자리를 차지하고 로인을 학대하는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는 등 녀성과 어린이, 로인들의 권리보장상황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냈다.

성별에 따르는 수입차이가 뚜렷하였다.

지난해에 작업량이 같은 조건에서 녀성들의 평균임금은 여전히 남성들보다 대폭 낮았다.

뉴욕시 공공부문에서 성별에 따르는 임금차이는 18%에 달하였다.

전국녀성법률센터의 분석에 의하면 캘리포니아주에서 임금이 가장 낮은 로동자들중의 60%가 녀성들이다.

성희롱과 성범죄가 자주 발생하였다.

신문 《유에스에이 투데이》웨브싸이트는 2016년 7월 미국녀성들중 약 4분의 1이 일하는 과정에 성희롱을 당하고있다고 전하였다.

많은 피해자들이 여러가지 원인으로 고소하지 않는것으로 하여 실지 그 건수는 더 많을수 있다.

같은 해 7월 14일 신문 《뉴욕 포스트》웨브싸이트가 밝힌데 의하면 페네시주의회 의원 탈렘이 직원을 랑용하여 22명의 녀성을 희롱하였다.

미국경찰은 성범죄피해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고있을뿐아니라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도 성별에 대한 심한 편견을 가지고있다.

신문 《뉴욕 타임스》웨브싸이트는 지난해 10월 28일 볼티모어시경찰측이 성범죄피해자의 신소를 묵살하였을뿐아니라 성범죄를 신고하는 녀성들에게 치욕을 주려 하였으며 그들이 범죄혐의자를 밝혀내려는데 대해 질책하거나 방해하였다고 전하였다.

심지어 일부 경찰들은 체포를 면하게 해주는 대가로 성봉사를 강요하고있다.

신문 《로스안젤스 타임스》는 미국의 빈민지역에서 사는 녀성들의 절반이 각이한 인권침해를 당하고있으며 그중 4분의 1이 성폭행을 당하고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다.

캘리포니아대학에서 200여명의 연구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여론조사결과 응답자의 32.6%가 성희롱을 당하였거나 다른 사람들이 성희롱을 당한데 대해 알고있었다.

중, 소학교들에서의 성폭행사건도 그치지 않고있다.

신문 《마이아미 헤랄드》웨브싸이트는 2016년 9월 21일 16살 난 한 녀학생이 동창생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후 신소한것때문에 오히려 학교측으로부터 어려차례나 수업참가를 중지당하였다고 밝혔다.

어린이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였다.

미국도시연구소가 지난해 9월 11일에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680만명의 10살-17살 청소년들이 식료품부족을 겪었다.

일부 청소년들은 도적질과 색정범죄, 마약판매 등으로 배를 채우고있으며 심지어 일부 어린이들은 감옥에 들어가는것을 먹을것을 얻기 위한 방도로 여기였다.

6. 다른 나라의 인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

2016년에 미국은 의연 다른 나라의 인권을 란폭하게 침해하고 공습으로 많은 민간인들을 살해하였으며 해외도청으로 외국공민들의 개인비밀보장권리를 침해하고 세계의 여러곳에 감옥을 내오고 사람들을 비법적으로 가두고 학대하였다.

공습으로 많은 민간인사망자를 초래하였다. 2014년 8월-2016년 12월에 미국은 이라크를 7 258차, 수리아를 5 828차 공습하여 733건의 민간인사망사건과 4 568-6 127명의 민간인사망자를 냈다.

신문 《로스안젤스 타임스》웨브싸이트는 2016년 12월 2일 아프가니스탄의 난가르하르주에서 미군의 공습으로 15명의 민간인이 살해되였다고 보도하였다.

2009년이래 미국의 무인기공격으로 파키스탄과 예멘, 소말리아에서만도 800명이 넘는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을 비법적으로 가두고 학대하는 문제가 의연 해결되지 않고있다.

미국정부는 2009년에 1년이내에 관따나모기지감옥을 폐쇄할것이라고 공약하였지만 2016년 12월 4일현재까지 여전히 59명의 수감자를 그곳에 감금하고있었다.

미중앙정보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세운 《쏠트 피트》감옥에 갇혀있던 혐의자 라만이 찬물뜨기우기고문에 못 견디여 사망하였다.

《육체적압력에 대한 서술》이라는 제목의 한 보고서는 중앙정보국이 《귀빰때리기》, 《어른에게 기저귀채워주기》, 《해충한테 제물리기》, 《가짜생매장》 등의 방법으로 수감자들을 학대하고있다고 밝혔다.

대규모적인 해외도청을 계속 감행하고있다.

미국의 정보부문은 오래전부터 다른 나라 수뇌자들과 기타 지도자들, 외교기구 및 일반주민들에 대한 도청을 감행하고있다.

2013년 전 미국가안전보장국 요원 스노우덴이 미국의 《프리즘》작전을 폭로한 후에도 도청범위는 계속 확대되였으며 기술수단도 날로 강화되여 강한 비난을 받고있다.

미중앙정보국은 각국 인민들이 트위터 등에 올리는 글에 대한 감시통제를 강화하였다.

미국가안전보장국의 비밀도청센터는 국내통신뿐아니라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그리고 수십개 나라를 대상으로 도청을 감행하고있다.

미국가안전보장국은 간첩센터를 운영하고있으며 미국으로 오가는 모든 전화와 팩스, 전자우편, 인터네트정보를 감시, 절취하고있다.

이상의 행위들은 국제사회의 광범한 비난을 받고있다.

(끝)

【조선중앙통신】

ㄱ-710628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말소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